금주의 법구–〈아함경〉
타인이 곧 나이고
나는 곧 타인이라 생각해
남에게 상처 줘서는 안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4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4월 15일)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는 봉축법요식이 봉행됐다. 사진은 조계사 봉축법요식에서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가 법어를 내리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중생 苦 보듬은 봉축…희망·치유 법석으로

5월 19일 서울 조계사 등 전국 사찰서 봉행

코로나 예방 위해 최소만 참석
노동자·미얀마유학생 등 헌등
정관계 인사 대거 참석해 눈길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는 봉축법요식이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법요식 규모는 대폭 축소됐지만, 부처님 오신 뜻을 되새겨 고통받는 중생,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대국민 치유의 법석으로 마련돼 감동을 전했다.

특히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5월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한 불기 2565년 봉축법요식은 역대 최소 규모 임에도, 부처님 오신 뜻을 찬탄하는 본연의 의미는 그 어느 해보다 컸다는 평가다.

올해 법요식에는 코로나 시국 방역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다해 온 방역의료진과 쿠데타 발발 후 내전으로 치닫고 있는 미얀마 재한유학생, 산업재해 사망노동자 유가족, 이주민 노동자 대표, 쿠팡노동자 등 소외된 약자들을 초청해 한국불교계의 지지와 격려를 전했다.

공식 행사는 도량결계와 육법공양,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친다는 의미의 명고와 성불을 서원하는 명종을 시작으로 개회한데 이어,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관불 및 유민우·이주현 어린이(조계사어린이법회)의 마정수기, 헌촉·헌향·헌화·헌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의 축원,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봉축사,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의 법어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처님전에 초와 향, 꽃과 차를 올리는 의식은 우리사회 곳곳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약자들이 초청돼 대표로 공양을 올려, 중생과 함께하는 희망과 치유의 법석으로 화했다. 헤이만 재한미얀마청년대표가 희망의 등을, 김효주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응급실 수간호가 치유의 등을 올렸으며 우다이 라야 이주노동자 위원장과 이대로 청주방송국 故이재학 PD 유가족,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 청소노동자 지부장, 정진영 쿠팡노동자 지부장이 헌화하며 안전한 근무 환경과 차별 없는 세상을 발원했다.

종정 진제법원 대종사는 봉축법어에서 ""코로나 질병을 계기로 자연과 인간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자연과 인류(人類)는 상생(相生)하는 존재"라며 "이 자연은 우리의 조상들이 건강하고 깨끗하게 보존하기를 기원(祈願)하며 물려준 것이며, 또한 우리도 미래의 후손에게 온전(穩全)하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봉축사에서 지구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불자들의 관심과 실천을 당부한데 이어 현재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얀마 사태와 관련한 강도 높은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원행 스님은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조금 덜 소비하고 약간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인류를 살리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미얀마에 대해서도 현 사태를 야기한 군부를 향해 '모든 적대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불교계에 재차 깊은 감사를 전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연등회를 취소, 축소하고 법요식도 최소규모로 봉행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고귀한 용단을 내려주신 불교계의 희생과 양보에 존경을 표한다. 방역을 위하여 법회와 행사를 중단하면서도, 스님들은 산문을 활짝 열어 지친 국민들을 품어주셨다"고 "다른 이를 먼저 생각하고 이롭게 해주는 이타행과 생명존중 사상은 불교의 오랜 지혜인 만큼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과 자비의 마음이 더 넓고 크게 나눠질 수 있도록 불교계가 축원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마음을 모아 밝혀주시는 '희망과 치유의 연등'은 하나 된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희망과 치유의 빛'이고 '화합과 평등의 빛'"이라며 "부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새로운 도약을 가져다줄 것으로 믿는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 이원욱 정각회장, 주호영 정각회 명예회장, 이낙연·정세균 前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법요식에서는 '불기2565(2021)년도 불자대상' 수상자인 (사)한국차인연합회 박권흠 회장과 역사학자 한금순 씨,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미얀마유학생 二重苦 보도에 금융산업재단 지원 나선다

5월 28일 재한 미얀유학생연합회와 협약

미얀마 군부쿠데타 여파로 한국에서 심리적·경제적 고통으로 이중고를 겪던 재한 미얀마 유학생들에게 희망의 손길이 닿았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재한 미얀마유학생을 위한 생활비 지원에 나선 것. 특히 이번 지원은 미얀마유학생들의 고충을 취재·보도한 본지 기사 '재한 미얀마유학생들, 쿠데타 여파에 이중고'(本紙 1334호 참조)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신상훈)은 5월 25일 이사회에서 재한미얀마유학생들을 위한 기초생계비를 지원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어 5월 28일에는 서민금융진흥재단, 재한미얀마유학생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산업공익재단 측은 교육부 통계를 기준으로 현재 미얀마유학생 규모를 950여명 가량으로 보고, 1인당 매월 30만원씩 5월부터 12월까지 최대 24억 상당의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계비 지원은 연합회 소속 학생들 중 생계와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들의 신청을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대학·대학원 수료 중이거나 코로나 이후 휴학한 학생들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비자 등을 첨부해 신청시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의 미얀마유학생 지원은 지난 3월 31일 보도된 본지 기사가 계기가 됐다. 당시 본지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본국 금융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가족지원 및 아르바이트 등으로 충당해 온 유학생들이 학업은 물론, 생계를 지속할 수 없는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심층보도했다. 특히 에에띤 양곤외대 한국어과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돼 활동 중인 재한미얀마유학생연합회에 확인한 결과, 일부 유학생들은 학업 지속은 커녕 미얀마 관련 통번역 일거리가 급감하면서 최소한의 일자리도 찾을 수 없게 돼 생활 자체가 막막한 상황이었다. 유학생들의 고충을 드러낸 해당 보도 이후 본지에는 직·간접적으로 유학생들을 돕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는 등 적잖은 반향이 일기도 했다.

금융산업공익재단 역시 해당 보도를 계기로 본지에 재한미얀마유학생연합회 유학생들을 향한 장학금 및 생계비 지원 의사를 전달해 왔다. 이에 져윈테 재한미얀마유학생연합회장과 최재희 양곤대 박사과정 학생이 4월 말경 재단을 방문해 현재 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상세히 전달했으며, 재단 측은 내부논의를 거쳐 미얀마 금융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초생활비 형태로 유학생들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미얀마 현지 상황이 점점더 악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은 한국에서 유학중인 미얀마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학생 월 30만원 지원해
유학생들 경제적인 고통알린
本紙 보도가 계기·후속 성과
"생활가능…현대불교에 감사"

김창희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국장은 "미얀마를 포함한 국내외 사회공헌 방안을 모색하던 중 현대불교신문 기사를 통해 미얀마 유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됐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됐다"며 "장학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됐지만 미얀마유학생연합회 측과 만나 사정을 들어보니 현재 상황에서는 기초생계비 지원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1인당 30만원씩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미얀마 쿠데타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져윈테 연합회장은 "미얀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현대불교신문 덕분에 많은 친구들이 한국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다음 주 휴간합니다.



언택트 연등회, 새 봉축 '희망' 봤다

참석단체들 호응 높고, SNS 긍정비중 높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국 불자 시 · 공간 극복 장점
연희 영상 개인확인 쉽게 가능
'연등회' 검색어도 56%로 선방
SNS 긍정메시지 73%대 기록


5월 15일 온라인상에서 진행된 연등회에는 60여 단체들이 '줌' 프로그램을 활용해 참여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사상 최초로 언택트 방식으로 열린 불기 2565년 연등회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처음 시도되는 방식으로 인한 운영상 아쉬움과 함께 향후 온 · 오프라인 병행 효과에 대한 기대도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5월 15일 온라인상에서 진행된 불기 2565년 연등회에는 60여 연등회 참여단체들이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활용해 참여했다. 언택트 방식을 통해 연등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호평과 함께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행사를 병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율동 등을 담당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의 양선영 운영실장은 "전국 사찰에서 연희단 활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율동 챌린지에 참여하고, 영상을 만든 것 자체가 감동적이었다"며 "서로 시공간을 넘어 소통하는 부분에 분명한 장점이 있는 만큼 해외 연희단 연결, 일반인 연희율동 참여 등 앞으로도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실무자 입장에서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양 운영실장은 "오프라인에서는 아무래도 리더들이 율동 분위기를 주도하고 단체가 주목받지만, 온라인에서는 카메라로 개인이 직접적으로 주목받으니 어색해 하는 부분은 있었다. 앞으로도 언택트 방식이 융합되 사용된다면 이런 방식에 대한 불자들의 친숙함이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언택트 연등회에는 대학생 불자들의 참여도 활발했다. 조용석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지도위원장은 "보통 대불련 연희단은 학교별로 모여 활동을 하는데, 이번 연등회는 학교 자체가 집합금지를 하는 곳이 많아 중앙에서 언택트로 진행을 해도, 단위 대학에서 모이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참여한 많은 대학생 불자들이 소규모라도 모여 함께 연희단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하지 못한 아쉬움을 해소하는 계기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지도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언택트 연등회에 참여하다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해온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됐다. 연희단 활동도 서로 공유하고 칭찬, 격려해가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등회에 어린이 연희단 영상을 보낸 약사사 어린이법회 지도법사 윤성 스님은 "지방사찰과 달리 수도권 사찰들은 집합제한이 강해 자모들을 설득해 몇 팀으로 나누어 촬영을 했다. 영상 관람 또한 모여서 할 수 없다보니 법회 채팅창에서 링크를 공유해 유튜브로 시청했다"고 동참 과정을 밝혔다. 스님은 "예전 연등회의 경우 방송사 등에서 촬영은 하지만 연희율동에서 직접적으로 출연하진 않았다. 유튜브로 편집된 영상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나오니 아이들이 다른 연등회와 달리 더 신기해 했다"며 "다음날인 일요일, 언택트 어린이법회를 하며, 연등회 영상을 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서로 소통해가며 참여를 이끄는 방법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현장에서의 반응과 함께 이번 언택트 연등회는 인터넷 검색 등에서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5월 20일 현재 연등회 유튜브 채널의 연등회 및 유네스코 등재기념식 스트리밍 영상은 1만 100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봉축점등식 스트리밍 영상 또한 9970회를 넘겼다.

구글 검색량을 분석하는 구글트렌드의 '연등회' 키워드 검색에 따르면 가장 검색량이 많았던 2019년 5월 연등회 키워드 검색량을 기준으로 2021년 5월 연등회 키워드 검색량은 56%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연등회가 중단된 2020년 5월 검색량은 2019년 5월에 비해 34%에 불과했다.

SNS상에서도 언택트 연등회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SNS 분석사이트 썸트렌드에 따르면 SNS상 '연등회'와 '연등축제' 키워드의 관련 연관어는 '희망' '자비' '평화' '행복' 등 긍정적 언어가 전체 반응 중 73%를 차지했다. '어렵다'와 같은 부정적 언어는 8%에 불과했다. '부처님오신날' 키워드 조회 건수도 5월 15일 183건에서 5월 16일 539건에 이어 5월 19일 1만 604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SNS 상에서 'yunasuh' 씨는 "코로나 펜더믹으로 2021 올해 서울시의 도시 연등행렬은 취소 축소 될 것으로 들었는데, 그래도 알음알음 연등회를 준비했군요" 등의 의견을 남겼다.

불교 기반한 비영리 상담전문단체 출범

5월 1일 다르마심리상담센터 창립총회

효록스님 등 상담전문가 포진
불교계 전문상담사 양성 추진
사회적 사건시 공익적 상담도

불교적 가르침에 기반해 활동하고 있는 전문상담가들을 주축으로 한 비영리 상담 전문 단체가 처음으로 출범한다. 전문상담가 양성 및 상담기법 교육은 물론,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을 위한 심리상담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불교 상담단체로는 첫 비영리민간단체로 출범한 '다르마심리상담센터'는 5월 1일 비대면회의 방식으로 창립총회를 열어 단체와 운영에 관한 회칙을 확정한데 이어, 5월 17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완료하고 공식 출범했다.

다르마심리상담센터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이자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수퍼바이저인 효록 스님을 중심으로 박성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한국상담심리학회 수퍼바이저), 하현주 서울대 박사(한국상담심리학회 수퍼바이저) 등 전문가들이 불교계에도 비영리로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공익단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모으면서 추진됐다.

효록 스님은 "2014년 세월호 사태 당시 팽목항 현장에 개인적으로 찾은 스님들 사이에서 가톨릭, 원불교 등의 활동에 비해 불교의 활동이 미약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실제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불교 상담부스가 부재한 것을 본 뒤 불교의 대사회적 활동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했다"고 설명했다.

단체의 목적도 "고통받는 현대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 심리적 · 사회적 ·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상담실 운영과 상담자 인재 양성, 그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해 인류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로 정했다.

다르마심리상담센터의 핵심은 불교에 기반한 전문가그룹이 공익 차원의 최소 비용으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으로 상담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계층, 사회적인 사고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직간접적인 관계자 및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활동도 계획 중이다.

효록 스님은 "불교 상담은 현재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다 본질적이고 깊이 있는 상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다르마심리상담센터는 불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단체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교에 기반한 상담 전문가 양성 및 일반인 심리상담, 그룹상담 프로그램 등은 물론, 공익목적의 상담을 지속할 수 있는 후원 모금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첫 공식 프로그램은 5월 17일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 세우기'다. 스님들이 현재를 통해 스스로의 과거를 되짚는 과정에서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이끄는 심리프로그램으로, 현재 스님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02)808-8718, 농협 301-0292-8275-71(다르마심리상담센터) 송지희 기자

조계종, 타종단 스님 대상 귀종승 접수

6월 30일까지 은사 재적본사 통해
한국불교종단협 소속 종단만 가능

조계종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스님들을 대상으로 귀종(歸宗)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최근 '귀종승 입적에 관한 령'에 의거, 타종단 승적을 취득한 후 조계종으로 귀종해 조계종 승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스님을 대상으로 한 귀종승 입적 신청 공고를 게재했다. 귀종 신청은 은사의 재적본사 혹은 은사가 거주하는 사찰의 교구본사를 통해 가능하며 6월 30일까지 총무원 총무부로 접수하면 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에 한하며, 은사의 재적본사가 직할교구일 경우 은사 추천으로 신청가능하다.

자격 조건은 고졸 또는 동등 학력 이상을 기본으로, 당해 귀종승 입적신청 기준 연령 만 50세 이하로 타종단 수행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당해 귀종승 입적신청 기준 연령 만 60세 이하로 타종단 수행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타종단 수행경력은 귀종 신청 당시에 소속된 타종단에서의 수행경력으로, 기간 중 전종 또는 탈종을 한 경우 종단 간 수행 경력을 합산할 수 없다. 또 타종단 승적을 취적하기 전 이혼자로 가족부양의 의무가 없어야 하며 귀종 신청은 1회(반려 · 탈락 포함)에 한한다.

조계종 총무부에 접수된 귀종 신청서는 취합해 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계단위원회는 심의를 통과한 귀종 신청자에 한해 하반기 수계교육에 귀종 신청자를 입교토록 한 데 이어, 교육필증과 5급 승가고시 합격증을 수여받은 자에게 사미 · 사미니계를 수계(授戒)한다. 02)2011-1703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탄자니아에 전해진 자비 선물

아름다운동행, 5월 17일 지원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이 5월 17일 탄자니아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며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아름다운동행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백만원력결집불사 나눔 사업 일환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동들을 위한 코로나19 방지 천마스크와 빵, 삶은 달걀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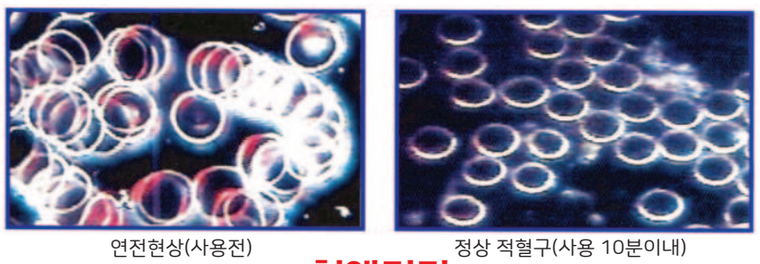
아름다운동행의 자비물품은 탄자니아 지부서 진행 중인 아동 영양급식 'HAPPY CORN' 사업 대상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인근 초등학교 9곳에 전달됐다. 총 4500여 학생들은 각각 재활용이 가능한 천마스크 2개와 옥수수죽, 빵, 삶은 달걀 등을 전달받았다.

부유니 초등학교 교사 조아치마(Joachima A. Kayagila, 38) 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아이들에게 천 마스크를 줘 고맙게 생각한다"며 "매일 옥수수죽을 지원해주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번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특별식을 더해줘 학생들이 의미 있게 느낄 것 같다"고 했다.

노덕현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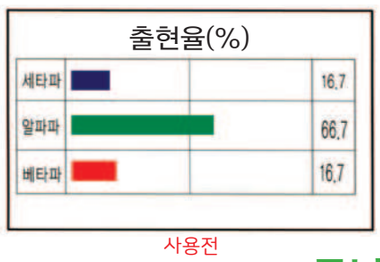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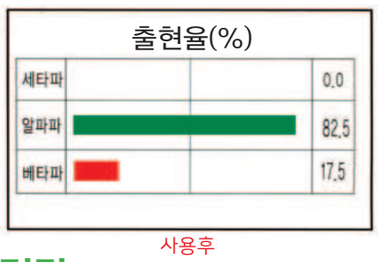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혈액건강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두뇌건강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세포건강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혈관이 깨끗해진다면, 차가웠던 손 발이 따뜻해지며, 면역력 증강과 각종 혈관 질환 예방 및 각종 두통이 사라지며 탈모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비누거품을 코 속에 넣고 마사지 해주면 감기예방하고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 및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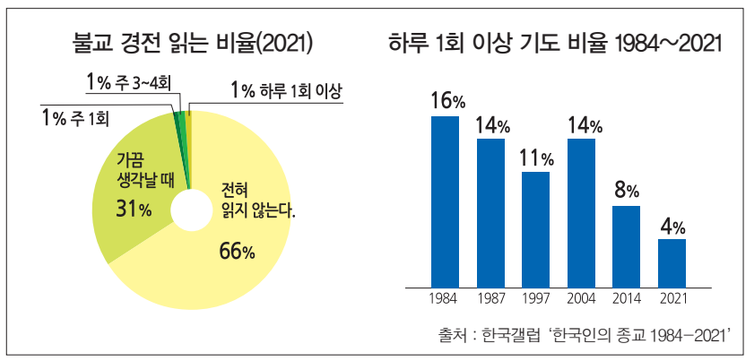
BLOOD MATE® 황금색:120g 2개 100,000원
BLOOD MATE® 핑크색:120g 3개 9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25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에이스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삼강

佛子 '기도 · 경전읽기 · 법회참석' 안한다

갤럽, '한국인의 종교' 조사
불자 66% "경전 읽지 않아"
불교 '3無 현상' 뚜렷 · 가속
교육 · 포교 체질 개선 필요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찰 법회 참석 않고, 경전을 읽지 않으며, 기도도 하지 않는 '3무(無) 불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5월 18, 20일에 2차례 걸쳐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조사는 1984년 시작돼 2014년까지 5차례 진행돼 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종교 전체적으로 탈종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불교적으로는 '3무 현상'이 빨라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40%였다. 비종교인은 60%로, 과반을 훌쩍 넘어섰다. 이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비종교인 비율인 56.4%와 유사한 수치로 사실상 한국사회가 '무종교사회'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한국갤럽은 종교인구 감소 원인으로 청년층의 탈종교화를 꼽았다. 2004년 조사에서 20대 중 45%가 종교를 믿었지만, 2014년 20대는 31%, 2021년 20대는 22%로 종교 인구가 줄고 있다. 30대 종교인 비율 역시 2004년 49%, 2014년 38%, 2021년 30%로 감소했다. 한국갤럽은 "20 · 30대의 탈종교 현상은 종교 인구의 고령화와 전체 종교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종교인들 중 호감을 갖는 종교로 '불교'를 꼽은 사람은 20%로 가장 많았고, 천주교는 13%, 개신교는 6%가 호감을 표했다. 반면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는 답변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에는 33%만이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고 했지만 2014년에는 46%, 2021년에는 61%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불교 내부적으로는 신행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 주 1회 이상 종교시설 방문률에 대한 설문에서 불교인 중 1%만이 '주1회 이상 사찰에 방문한다'고 응답했으며, 연 1~2회 사찰을 찾는다는 응답은 64%에 달했다. 반면 개신교인 57%, 천주교인 42%가 주1회 이상 교회 · 성당을 찾았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개신교인의 매주 종교시설 방문률은 2014년 80%에서 2021년 57%로, 같은 기간 천주교인은 59%→42%, 불교인은 6%→1%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경전을 얼마나 자주 읽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불교인 중 1%만이 하루 1회 이상이라고 답했다. 주 1회 이상 불경을 읽은 불자는 응답자 중 3% 밖에 되지 않는다. 2014년 11%였던 수치보다 8%가 줄었다. '불경을 읽지 않는다'는 불교인은 66%에 달했다.

'하루 1회 이상 기도한다'는 불자는 5%에 불과했다. '월 몇 회 이하'라고 답한 비율은 45%로 가장 많았으며,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불자는 42%였다.

'개인생활에서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묻는 질문에서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답한 불자는 62%로, 개신교인 90% · 천주교인 85% 보다 현저히 낮았다.

사찰 방문 빈도가 적다고 불교가 다른 종교보다 종교성이 옅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기도와 경전 읽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는 현재 한국불교 신행 형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 한국불교 교육과 포교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현재 한국불교 대부분의 불자는 부처님오신날이나 입춘, 백중, 동지에 사찰에게 가서 등을 밝히는 '정서적 불자'인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서 경전 독송, 염불, 기도 등의 신행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불교는 교육 · 조직화된 신도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젠 신도교육과 포교의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상 수지 독송할 수 있는 〈불교성전〉의 보급을 비롯해 포교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불교 종단들은 교육된 핵심 신도 발굴 · 양성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님오신날 '전도축제'연 개신교 '빈축'

조계사 인근 '찬송가' 방송
"하나님 믿으라" 구호외쳐
"도 넘은 행위" 비판 확산

부처님오신날 한 개신교 단체가 봉축법요식이 봉행되던 서울 조계사 인근을 돌며 확성기로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구호를 외치는 등 상식 밖의 행위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부처님오신날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자 불자들이 사찰을 찾아 참배하며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고 신심을 고취시키는 특별한 날인 만큼, 사찰에서 벌어진 개신교계의 일방적이고 몰상식한 선교행위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개신교 단체는 5월 19일 오전 10시~5시 봉축법요식이 봉행된 서울 조계사 인근에서 '서울예수전도축제'를 진행했다. 이날 전도축제에는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라' 불교연등 즉각 철거, 차별금지법 원천불가 등을 플래카드에 명시한 채 집회를 이어갔다.

그리고 오후 2시반경 이들은 조계사 일주문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전개했다. 확성기를 들고 찬송가를 부르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세요" "회개하십시오" 등 구호를 외치며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방해했다. 지나가던 시민들과 신도들의 저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찬송가를 방송하던 이들은, 결국 5시간 넘게 조계사 인근에서 일방적인 선교행위를 하고서야 자리를 떴다.

본지가 제공받은 사진의 플래카드에 따르면 해당 집회는 '예수재단'이라는 개신교 단체가 주최했다. 예수재단은 지난 2013~2014년 경에도 조계종에 연등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가 하면, 연등회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도 지정 취소를 주장하는 등 조계사 일대에서 불교폄훼 활동을 지속해 왔던 단체다.

한편, 이날 집회는 불자들을 넘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블로그와 SNS 등에 게재하면서, "도를 넘어선 행위"라는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송지희 기자**



한 개신교단체가 5월 19일 서울 조계사 인근에서 '서울예수전도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

"신흥사 시왕도 4점, 환수 당위성 크다"

신흥사 · 문화재제자리찾기 주최
5월 14일 환수 방안 모색 세미나
김경미전문위원 "지속노력 필요"

한국전쟁 직후 미국으로 반출된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시왕도가 조계종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신흥사와 속추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무사히 환수됐지만, 여전히 시왕도 4점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시왕도 등 돌아오지 못한 신흥사 성보문화재 환수 방안을 모색하고 환지본처한 문화재의 효과적인 활용 · 보관을 고민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와 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는 5월 14일 '신흥사 성보문화재 환수 촉진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박미현 문학박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경미 문화재청 전문위원이 '신흥사 시왕도 4폭의 환지본처를 위한 제고', 박동석 국제문화재 전략센터 이사장이 '설악산 신흥사 환수문화재 활용방안', 김근태 한국외국어대학교수가 '환수문화재와 지역사회 상생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창삼 강원도민일보 속초지사장과 홍성익 강원도문화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김경미 전문위원은 신흥사 시왕도 4점에 대해 "반드시 제자리로 환수돼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시왕도는 1954년 신흥사에 있던 미군의 반출 전후 사진에 의해 한국전쟁 후 주둔했던 미군의 불법반출 행위로 사라진 문화재임이 확실시 되고 있다. 전란 중에 약탈당한 문화재로서 송환의 대상이며, 이 불화가 조선시대 강원도 지역의 대표적인 왕실 원당이자 추복사찰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불화라는 점에서 남은 4위의 시왕도에 대한 환수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화재 환지본처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함께 전했다.

김 위원은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에 대해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다소 수동적이었던 헤이그협약의 관점에서 점차 환지본처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결국 다양한 국제협약의 목적은 도난 ·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이라며 "이러한 협약은 크게 구속력을 갖지 못하다가 이라크전쟁으로 이라크의 문화재가 약탈 및 불법 반출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대중적으로 공감대가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약탈당한 문화재 등이 페이스북에서 판매되는 현황이 발표되면서 전쟁 중 이뤄진 약탈 문화재의 보호에 관심이 집중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은 "문화재 반환은 '불법이전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를 통해 조정 및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며 "ICPRCP는 2020년 5월까지 22차 회의를 개최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경우 원래의 자리로 환수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은 "신흥사 시왕도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미군에 의해 반출됐음을 뒷받침하는 사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성을 열어놓고, 당사국 및 관련 기관, 소유자가 지속해서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남은 4위의 시왕도 환수를 위해서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있다는 불화에 관한 확인이 하루바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진흥원 대원학술 · 콘텐츠 공모 당선작 시상

학술부문 8편, 콘텐츠부문, 11편 총 1억 6400만 원 지원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5월 18일 '제3기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 당선작을 발표, 증서를 전달했다.

이번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는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대중화의 재단 설립 취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불교를 오늘의 현실에 맞게 연구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3월 12일까지 응모된 총 88건(학술 28건, 콘텐츠 60건)의 학술 및 콘텐츠 제안서를 대상으로 1차 예비심사를 통과한 51건에 대해 상세 계획서를 추가로 접수받은 것으로 2차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학술 부문 8편과 콘텐츠 부문 11편 등 총 19편이 선정됐다.

세부적으로 학술 부문에는 저서 3편과 번역서 5편이, 콘텐츠 부문에는 만화 1편, 동화 2편, 찬불가 작사/작곡 2편, 수행프로그램 개발(실행) 6편을 선정됐다.

제3기 상금 총액은 1억 6400만 원이며, 최종 선정된 지원자와 단체에게는 각각 500만 원에서 1200만원의 상금이 지원된다.

선정자는 약정서 체결을 통해 결과물을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최종 결과물 중 일부는 심사를 거쳐 향후 총서 시리즈 형태로도 발간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6회
천태예술 공모대전
Cheontae Order of Korean Buddhism Art Award


제5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수상작입니다

접 수 10.13(수) ~ 14(목)
전 시 11.24(수) ~ 29(월)

주최 대한불교천태종
주관 제6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운영위원회
시행 대한불교천태종 천태문화사업단
후원 금강신문사, 불교천태중앙박물관

부문 및 부문별 공모 개요

부 문	규 격	유 의 사 항
불 화 (전통·현대)	200호 미만 가로×세로 합 400cm 이하	표구된 완성작만 접수
조 각	높이 250cm 미만 가로×세로 합 400cm 이하 무게 500kg 미만	조립한 완성작으로 제출
공 예	높이 200cm 미만 가로×세로 합 400cm 이하	
민 화	200호 미만 가로×세로 합 400cm 이하	액자 제작 후 접수

※ 자격 제한 없음
※ 1인 3점 이하
※ 1점당 5만원, 대학 재학생은 3만원 (학생증 사본 필수)
※ 액자 유리 금지

시상 내역

시 상	수 상	시 상 내 역	비 고
대 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명	상금 2,000만원 상장 상패	종단 귀속
최 우 수 상 (문화재청장상)	1명	상금 700만원 상장 상패	
우 수 상	4명	상금 각 200만원 상장 상패	
장 려 상	4명	상금 각 50만원 상장 상패	
특 선	약간명	상장 및 상품	
입 선	약간명	상장	
특 별 상		상장 및 기념패	

제출서류
- 출품원서(소정양식) 1부
- 작품설명서(소정양식) 1부
- 대학생 학생증 사본

공모요강·원서 배부
-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다운로드

작품 접수
- 접수 기간 : 10월 13일(수) ~ 14일(목)
- 접수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접수 장소 : 관문사 2층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

접수 계좌
신한은행 100-030-083607 예금주 대한불교천태종

심사 발표 금강신문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통보

문의 천태예술공모대전 사무국 02-547-4746

시상식 및 전시
11월 24 ~ 29일 서울 관훈동 동덕아트갤러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51-8 동덕빌딩 지하 1층

자세한 사항은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부산불교계, 봉축 '자비 나눔'으로 회향

릴레이 약사기도와 소외계층 돕기 진행

5월 16일 연등축제 회향식
릴레이 약사여래 기도 및
상품권 구매캠페인 진행해



부산연등축제 회향식에서 스님들이 의료진 후원금을 보시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는 부산연등축제가 막을 내렸다. 부산불교계는 회향과 함께 자비 나눔을 실천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더했다.

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회장 경선 · 이하 부산연등축제조직위)는 5월 16일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 자유회관에서 '불기 2565년 부산연등축제 및 릴레이 기도정진' 회향식을 봉행했다.

회향식은 총 3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불교TV염불공양회의 육법공양과 부산영산재보존회가 진행하는 국운융창 영산재, 관불의식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삼귀의 및 입정, 약사여래 기도문 봉독과 정근, 발원문 낭독 등 코로나19 극복의식이 진행됐다. 3부에서는 봉행사와 함께 부산불교대상 시상식 및 자비 나눔 행사, 봉축법회 등이 진행됐다.

회향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연합회 상임부회장 마나 스님 · 진광정사 등 연합회 스님들과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설동근 고문, 박형준 부산시장,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교육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번 회향식에서 부산연등축제조직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연등축제기간 온누리상품권 구매 캠페인을 진행했다. 부산연등축제조직위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약정도 함께 진행, 총 6000만 원의 성금을 모았다.

이날 부산연등축제조직위는 제3회 부산불교대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불교 발전과 중흥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치하했다.

대상에는 김수현 불교TV 부산지사장, 최우수상은 범어사 금강암 장학회, 우수상에 강미자 금정총림포교사회 회장, 삼광사 봉사회, 현익채 전 금정중학교 교장, 공로패는 주영미 법보신문 기자가 수상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연등축제서 밝힌 수많은 등은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 찬탄의 공양이자, 과거부터 이어 온 부처님의 밝은 광명의 가르침을 의미한다"며 "연등축제의 장엄한 등은 현재의 시간 뿐 아니라 과거를 품고, 미래를 밝힐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귀한 법에 부합하며 살아가고,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되는 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은 봉행사에서 연등축제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동참자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호명하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박 회장은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의 정성과 노력이 모여 회향식까지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다"며 "힘든 시기에 우리의 기도와 발원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과 치유를 안겨주는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부산불교대상 수상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불교 중흥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달했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는 5월 17일 부산의료원을 방문해, 느티떡과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의료진을 응원했다. 위문품은 1000만 원 상당으로 코로나 극복 릴레이 기도 당시 참여한 종단, 연합회 등 스님들과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동화사, 대구시립합창단 종교편향 항의

대구시 측 사후방지 약속

대구 동화사가 5월 14일 대구시립합창단의 종교편향 기획연주에 항의, 대구시의회를 방문했다.

동화사 국장단과 장세철 신도회장 등 대표 10여 명은 14일 장상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문제 지적과 함께 대구시장 공식사과, 재발방지 대책 강구, 합창지휘자 문책 등을 요청했다. 종교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시립합창단 연주는 4월 29일 진행된 시립합창단 40주년 기념 및 정기연주와 5월 13일 '찾아가는 음악회 시민행복 나눔콘서트' 등이다.

동화사 측은 "오페라 합창 가사에서 '찬양하세' '교회에 기도하러가세' '영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세' '찬송으로 경배 드리세' 등 가사 반복이 문제"라며 "특히 5월 18일 같은 내용으로 예정된 공연 등 부처님오신날 즈음 이 같은 공연을 진행하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동화사는 "대구시립합창단은 대구시민 정서에 맞는 합창단이어야 한다. 종교편향이 없는 시립단체인지 의문스럽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 발생하는 건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화사 측의 항의에 관할 담당자인 박희준 대구시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구시는 2014년부터 공연준비위 심의를 거쳤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이 과정이 생략됐다. 대구시립합창단 편향공연으로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불교계서 요구하는 대구시장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강구, 지휘자 문책 등을 보고 후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우리말 반야심경 읽으며 신심 고취를"

관음사, 5월 16일 어린이 한글반야심경 독경대회 개최



관음사(회주 지현)는 5월16일 원통보전에서 '우리말 반야심경 독경대회'를 실시했다.

'우리말 반야심경 독경대회'는 관음사 어린이 및 청소년 법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부처님오신날과 스승의 날을 맞아 감사의 뜻을 전하는 대회로 마련됐다.

이번 독경대회는 사경대회 및 독경대회 예심 통과 20여 어린이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그동안 각자 갈고 닦은 우리말 반야심경 독경 실력을 뽐냈다.

지현 스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 향기로운 연꽃이며 태양보다 더 빛나는 보석이다. 꽃이 시들지 않고 보석이 때 묻지 않도록 물주고 거름 주고 하는 것이 스님들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독경대회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불자로서 자라나 달라"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독경대회에 앞서 어린이와 자모회는 스승의날 행사로 스님들에게 꽃을 전달했다. 아울러 '스승의날'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사)세상을향기롭게 코로나19 성금 전달

사단법인 세상을향기롭게(이사장 정여)는 5월 14일 부산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세상을향기롭게는 전달식에서 1000만 원을 후원했으며, 후원금은 부산광역시를 통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된다.

전달식에는 사단법인 세상을향기롭게 이사장 정여 스님, 상임이사 정오 스님, 이사 도명 스님, 보혜 스님, 박형준 부산시장이 동참했다.

(사)세상을향기롭게는 "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 불교계가 함께 기원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음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인도불상, 통도사 봉안되다

한-인 국제문화교류 물꼬
5월 16일 불상 봉불식 봉행


통도사는 5월 16일 국제템플스테이관 청풍당에서 '한국 · 인도 국제문화교류 불상 봉불식'을 개최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에 인도에서 온 불상이 봉안됐다. 통도사(주지 현문)는 5월 16일 국제템플스테이관 청풍당에서 '한국 · 인도 국제문화교류 불상 봉불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삼귀의 및 반야심경 △고불문 낭독 △경과보고 △코로나19 방역기금 전달식 △환영사 △인사말 △법어 등으로 진행됐다.

통도사는 이번 봉불식에서 인도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물품 지원도 진행했다. 통도사는 코로나 극복성금 3000만 원, 마스크 30만 장을 기부했다. 마스크는 (주)블루인더스가 협찬했다.

방장 성파 스님은 법어를 통해 "법망은 촘촘한 법망으로 고해에 시달리는 중생을 구하겠다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의 뜻이 담겨 있다"며 "이번 계기를 맞아 부처님을 모시는 공덕으로 자신 속의 부처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지 현문 스님은 "허왕후가 인도 아유타국에서 가야로 왔다는 내용을 통해 한국과 인도는 연결돼 있고 심리적으로 마음의 거리는 가깝다"며 "부처님 봉안을 계기로 국제교류가 종교를 넘어 문화와 경제 분야로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란가나탄 인도 대사는 "인도 청동불상을 부처의 진신사리가 있는 통도사에 모실 수 있어 큰 영광이다"며 "'인내는 행하기 어렵지만, 인내하는 자에게 승리가 찾아온다'는 부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원했다.

한편, 봉불식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주지 현문 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오심 스님, 영축총림 유나 항조 스님, 승가대학장 인해 스님, 노전 광우 스님, 율학승가대학원장 덕문 스님, 염불원장 영산 스님, 총무국장 종현 스님 등이 참석했으며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 소누트리베디 주한인도문화원장, 김일권 양산시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능인학원 개교82주년 기념식

종립 학교법인 능인학원은 5월 14일 교내 숭덕관 대강당에서 개교 8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능인학원 이사장 도진 스님과 직지사 박물관장 진웅 스님, 교법사 문수 스님을 비롯해 정영채 능인중학교장과 김원술 능인고등학교장, 김동원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사장 도진 스님은 "우리 능인가족들은 '탓'이라는 부정적 원망과 불평보다는 '덕분'이라는 감사와 긍정으로, 삶의 변화를 이끌자"며 학교의 발전에 헌신한 모든 교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정영채 능인중학장은 "일제 강점기 속에 꺼져가는 민족 정기를 살린 고승 대덕 스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살려 헌신으로 교육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일체제불의 자비와 사랑은 일체중생의 자비와 사랑이다.
-대행선사 법어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광명선원

사부대중일동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 043-877-5000
FAX. 043-877-2900



"종지 · 종파를 묻지 않겠습니다"

日프레지던트, 5월 16일 불교계 지각변동 특별보도

종파 불교 전통 변화 양상
167개 종파로 현황 증가해
종단구분서 생활밀접 선호

박영빈 객원기자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일본의 종파불교는 각 종파간의 색깔을 뚜렷하게 만들었다. 사진출처=시즈오카 불교회

종파불교로 흔히 알려진 일본 불교, 수세기 동안 종파간의 엄격한 질서가 유지되고 있던 틀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5월 16일, 일본 '프레지던트 온라인'은 일본불교가 이어오던 체계에 지각변동이 시작됐다고 특별보도했다.

일본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6세기경이다. 전래 당시 특별한 종파가 형성되지 않은 채 단일한 교단으로 이어졌다. 이후 중국에서 천태종과 진언종이 들어오면서 8개의 종단이 생겨났고, 12세기에 들어서야 13종으로 늘어났다.

'프레지던트 온라인'은 종교법인법이 실시된 1939년, 13종 28파로 세분화됐으며 최근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167개 종파로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이것 또한 전통적인 종단과 그 분파만을 계산한 것으로 신흥종단과 지파를 추가하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정부에서 최근 펴낸 종교통계에 따르면 현재 일본 최대 종단은 조동종이다. 등록된 사찰의 수는 1만 4600여 개소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는 정토진종 혼간지파로 사찰은 1만 300여 개소로 집계되고 있다. 정토진종은 단일 종단 사찰 수만 집계한 것으로 분파를 포괄할 경우 정토진종이 1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도 종단의 분포와 강세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쿄는 정토종과 천태종이, 수도권인 간토지방은 일련종이 강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근대기에 불교가 박해를 받았던 남부지역의 경우 포교에 열성이었던 정토종 사찰이 강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은 중세부터 사찰과 관청을 겸하는 정책을 진행하면서, 주민의 호적과 신분증명을 사찰에서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사찰은 지역의 중심이 됐고 해당 지역 사찰이 따르는 종단과 그 종지에 지역민들이 모두 결속돼 왔다. 이로 인해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거나 이동시에 종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료도 남아 있다. 특히 장례에 있어서도 소속 종단 외 스님이나 사찰에 제사와 납골을 맡길 수 없는 경우는 현대에도 곧잘 보이는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종파 불교적 성향이 붕괴되고 있다.

프레지던트 온라인은 종교전문 저널리스트인 우카이 히데노리 스님의 말을 빌려 "최소 2세기 가까이 지속되어 온 종파의 지각이 분열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카이 스님은 "현대에도 종단에 따라 상장례를 분리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종단이나 종지를 묻지 않고 집전하는 사찰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찰이 관청의 역할을 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면서 젊은 세대가 더 이상 집안 대대로의 종단에 대한 열성적인 신심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은 도시를 중심으로 종단을 묻지 않고 의례를 집전하는 사찰이 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존의 신도회 조직이 아닌 회원제로 운영하며 신도를 관리하고, 종파간의 차별 없는 교류가 이어지는 등의 현대적인 사찰 운영도 보이고 있다.

우카이 스님은 "젊은 세대들은 종단에 대한 구분이나 세부적인 종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불교'로만 모든 시스템을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오히려 일본에 불교가 처음 전래되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사찰 오리들, 자연으로 돌아가다

日요보지, 5월 13일 방생 진행
〈要法寺〉



요보지에서 강으로 향하는 오리들. 사진출처=마이니치 신문

교토의 고찰에서 매년 봄 특별한 풍경이 펼쳐진다. 경내의 연못에 오리 한 쌍이 정착해 매년 봄에 태어난 새끼오리들이 사찰 근처의 강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매년 스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둥지를 옮기는 교토의 봄 풍경을 5월 13일 'NHK 교토', '마이니치 신문' 등이 보도했다.

교토시에 소재한 요보지(要法寺)는 14세기에 창건된 일련종 계열 사찰로, 시내에 1만 2500㎡의 사역을 가진 대찰이다. 사찰의 본당 앞에 있는 연못에 언제부턴가 오리 한 쌍이 정착, 매년 봄에 새끼 오리들이 태어나고 있다.

요보지 측은 "2005년부터 오리들이 날아오고 있다. 사찰의 서쪽에 흐르는 카모가와 강에 살던 오리가 옮겨 온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주변의 소음이나 위험요소가 없는 안전한 곳이라 정착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측했다.

올해 3월에는 12마리의 새끼오리들이 부화했다. 사찰과 지역단체들은 새끼오리들이 자라는 모습을 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했다.

요보지 측은 지난해 10마리가 부화한 것에 비해 개체수가 늘었으며, 성장속도도 빠르다고 전했다. 13일 아침, 스님들과 자원봉사자, 관찰을 위해 나온 주민들의 관심 속에 이주 준비를 마친 오리들은 요보지를 출발해 카모가와강으로 향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종이박스와 우산 등으로 길을 유도했으며,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선 경찰이 직접 교통정리를 통해 도로를 건너게 했다. 출발로부터 약 2시간 후 모든 오리들이 700m 떨어진 강에 무사 도착, 행렬에 참석한 모든 참가자들이 기뻐했다.

2세의 자녀와 오리 이사를 지켜본 한 여성은 "오리가 매년 이주하는 것은 알았으나 보러 온 것은 처음이다. 내년에도 보러 오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요보지 측은 "사찰에서 태어난 생명들이 무사히 성장하고, 또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는 것을 보호하는 것은 불교의 생명보호사상의 실천"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이주는 예년과는 달리 새끼오리들로만 이루어져 더욱 이목을 끌었다.

박영빈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러시아 신경과학자와 대담

사후 삼매 '툭담'에 대한 러시아 과학자들과 연구



러시아 과학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텐진 잠펠 스님

5월 10일 불교전문 매체 '부디스트도 어글로벌'은 달라이라마와 러시아 과학자들 간의 대담을 보도했다. 대담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제는 사후삼매라고 알려진 '툭담'에 대한 과학적 연구였다.

툭담은 마음을 뜻하는 '툭'과 삼매를 뜻하는 '담'에서 유래한 말로 '마음이 삼매에 들었다'는 뜻이다. 육신은 의학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으나 수행자의 의식이 아직 몸 안에 남아 깊은 삼매에 들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후 삼매에 든 수행자는 사후 경직, 부패 등의 사망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달라이라마는 2018년부터 툭담에 든 수행자의 신경생리학적 작용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시작했다.

이번 대화는 러시아 과학자들과 러시아 세이브 티베트 재단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대담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인도에선 최근 툭담을 보인 스님이 나온 규뙤사원과 툭담을 불교적으로 해석하는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러시아에선 러시아 세이브 티베트 재단,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뇌 연구, 러시아 과학센터 등에서 참석했다.

달라이라마는 "우리는 더 많은 툭담 사례를 조사하고 연구해서, 이 현상이 과학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보통 불교에선 사람이 죽으면 몸을 구성하는 4대 원소가 해체되면서 몸이 굳거나, 체온이 식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의 은사였던 링 린포체는 13일 동안 툭담에 머물렀고, 최근 규뙤사원의 한 스님은 37일 간 툭담에 머물렀다. 이는 우리가 직접 관찰 가능한 현실이다. 직접 보고 측정 가능한 증거가 있다"며 과학자들이 "이 모든 것을 참작해 툭담에 대한 설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실제 지금까지 사후 삼매의 단계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에선 뇌과학자들과 법의학자들이 초빙되기도 했다.

툭담 이외 대담은 광범위한 주제로 진행됐다. 그 중에서도 명상 중 뇌의 기능과 정서적, 정신적 행복, 마음의 평화 유지, 환생과 전생에 대한 기억 등 다양한 대화가 이어졌다. 달라이라마는 환생과 연속되는 의식의 시작에 대한 질문에 "환생은 의식을 수반한다. 의식은 의식의 순간의 연속성으로 이루어진다. 이 본질은 명확성과 인식이다. 모든 의식 있는 생물의 마음은 이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달라이라마는 "우리가 의식의 시작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의식의 시작을 이전 의식인 양립 가능한 원인부터 찾아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의식의 근원이 의식의 이전 순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의식의 시작은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우리의 가장 미세한 의식은 시작도 끝도 없다"며 불교의 무시무종 개념을 설명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英, 연극으로 부처님 생애 배워요

미션스쿨, 종교 수업 화제



인도와 네팔의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커클랜드 아카데미 재학생. 사진출처=뉴스 앤드 스타

영국 컴브리아주 커클랜드에 소재한 기독교 미션스쿨에서 부처님의 생애를 가르쳐 화제다. 지난 14일 컴브리아주 지역 타블로이드 신문 '뉴스 앤드 스타'는 커클랜드 아카데미의 불교수업을 보도했다.

커클랜드 아카데미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학교지만,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이주민들의 전통종교를 존중하는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 학생들은 불교, 힌두교, 시크교 등 다양한 종교를 체험하는 교육을 받는다.

커클랜드 아카데미 수잔 러드 교장은 "우리 지역 공동체에서 불교, 힌두교, 시크교와 같은 다양한 종교는 더 이상 이질적인 문화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수업 배경을 설명했다.

14일 학교에서 진행된 불교수업은 아이들이 직접 인도와 네팔의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음악을 사용해 연극을 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아이들은 직접 마음에 드는 전통 의상을 골라 입어보고, 자신들이 상상하는 부처님과 그 주변인으로 분장했다.

수잔 러드 교장은 "아이들에게 불교에 대한 이해와 전통, 그리고 삶의 방식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준비했다. 기독교 뿐만 아니라 타종교에 대해 배우는 것이 우리 학교의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불교수업은 대성공"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교육에 참여한 교직원들 역시 "너무나 아름답고 편안한 하루였다. 아이들만 불교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도 불교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참 나를 찾는 행복이 가득한 절

불자교육 시민선방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대법화원 개원법회 및 부처님 점안식"

●일 시 : 불기2565년 / 2021년 6월 19일(토) 오전 10시(음력 5월 10일)
●장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132번지 용성빌딩(구.부산은행) 5층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대법화원 대법당]

대한불교조계종
법화신행도량 우리절대법화원
BTN 불교TV 진심법문 방송 도량
상담문의 : 051) 892-5000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132번지 용성빌딩 5층 (구 부산은행)



불자여러분!
한국불교 대표방송인 BTN불교TV에서 '진심법문'을 인기리에 강설한 대풍범각스님께서 그동안 닦아온 수행경험과 법력으로 불자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특화된 불교 신행 전문포교원 "우리절 대법화원"을 개원합니다.

첫째, "우리절 대법화원"에서는 주지 대풍범각 스님의 진심법문과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큰스님들을 초청설법을 통하여 불자여러분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절 대법화원"은 불교의 진리와 신행을 배우고 익히는 포교원일 뿐만 아니라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익히는 문화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도, 서예, 꽃꽂이, 불화그리기, 노래, 선 체조 등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열어 불자님들의 불성과 인성계발은 물론 삶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생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복이 가득한 절'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셋째, 주지 대풍범각 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행방법'과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불자여러분! 오랜 신행 속에서도 깨달음이 열리지 않고 삶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대법화원'의 주지 대풍범각 스님과 함께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신다면 분명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시게 될 것 입니다.

불자여러분! "우리절 대법화원의 개원법회" 소중한 여러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참석하는 모든 분들께 귀한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회주 : 서해 흥교 큰스님(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주지 : 대풍 범각 스님(견불사, 실상선원, 사천왕사, 대각정사 창건주)

대풍 범각스님의 진심법문
YouTube 대풍범각TV



[주지 대풍범각 스님]
●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출가
● 흥교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 견불사·실상선원·사천왕사·대각정사 창건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 미국코웬대학교 명예 종교학박사
● 현)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이사장
● 현)붓다야나명상대학 학장
● 현)대한불교자비공덕회 대표
● 현)대각정사·사천왕사·대법화원 주지
● BTN불교TV "진심법문"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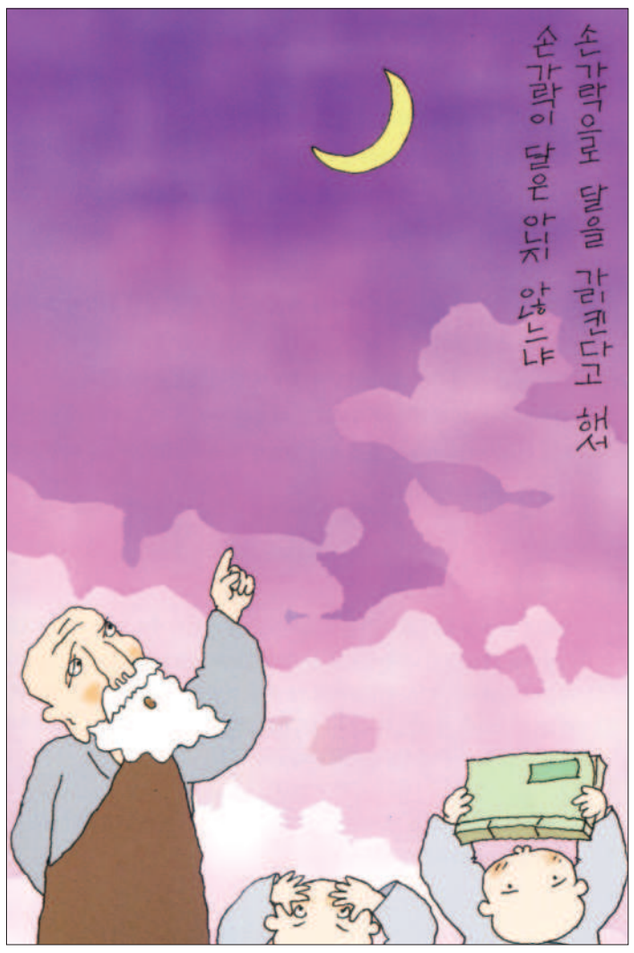
함께 하실 가족을 모십니다.
● 공 양 주 : 1명
● 종무직원 : 1명 (유경험자 우대)
문의 : 051)892-5000

동자승과 스승 문답엮은 선만화 에세이



명상여행 마음
글 김충현 지음/그림 고성원
인북스 펴냄/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날마다 되풀이 되는 평범한 일상이 바로 기적"
우리마음 그릇에 무엇 담느냐에 따라 삶달라져

이 책은 순진무구한 동자승과 지혜로운 스승의 문답을 엮은 선만화 형식의 에세이집이다. 옛 선사들의 화두를 오늘의 삶과 생활 방식에 맞춰 재구성한 1~3컷짜리 그림을 통해 마음의 속성은 무엇인지,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명상 여행을 떠난다. 5개의 장으로 나뉜 95개 꼭지의 예화에는 선지식들의 시대를 뛰어넘는 깨달음과 촌철살인의 지혜가 담겨 있다.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한지, 왜 삶은 늘 무가치하고 고통스럽기만 한지 번민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치유를 위해 기획된 이 책은, 해학적이고 기지에 넘치는 삽화를 대하며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찬찬히 음미하면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 준다. 예화와 함께 덧붙인 간결한 풀이가 맑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꾸어 가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머릿속에 저절로 생각 등불 켜지는 명상여행

행복의 길을 찾아 떠나고 싶다면 우선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마주하다' '들여다보다' '내려놓다' '일깨우다' '심다' 등등, 마음 여행 과정을 모두 다섯 단계로 나누어 깨달음의 예화를 제시한다. 각각의 예화마다 만든 사람의 의도와 시대 배경에 따라 담은 교훈적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관점서 접근해도 삶을 통찰하는 훌륭한 지혜를 만날 수 있다. 저자는 지나간 과거에 집착해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걱정하느라 정작 오늘을 그냥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과거든 미래든 행복하려면 오늘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어야 하고, 과거로 말미암아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어서 내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처한 현실이 고달프다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날마다 되풀이되는 평범한 일상이 바로 기적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데서 행복이 깃든다는 진리를 깨닫는 마음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이 이 책이 제시하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나를 알아야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

나는 본래 어떤 존재인지 잘 아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리석음서 비롯되는 편견과 집착을 내려놓고 찬찬히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본래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 애쓰는 것이다. 무심하지만 막힘없이 탁 트인 하늘처럼 마음속을 깨끗하게 비우고 욕망을 내려 놓으면 의연하고 당당한 나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다. 헛된 욕심에 물들기 이전의 맑고 깨끗한 마음자리, 다른 이들이 어려운 것을 보면 그냥 넘기지 못하는 자비로움,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감동할 줄 아는 순수한 마음, 이런 마음을 지닌 존재가 바로 본래 타고난 내 모습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본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으려 부단히 애쓰는 마음 자세가 삶을 지혜롭고 평온하게 꾸려가게 한다.

내 마음 향하는 곳에 행복이 존재한다

유리병에 꽃을 꽂으면 꽃병이 되지만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듯,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탐욕과 분노의 마음을 일으키면 지옥을 헤매게 되고,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열면 봄바람이 부는 행복한 세상을 만난다. 스스로 마음을 여닫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 행복과 불행이 만들어진다. 얼음과 같이 차갑다가도 용광로처럼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어느 쪽을 향해 여느냐에 따라 순식간에 천국과 지옥이 교차한다. 내 마음이 가는 그곳에 세상이 존재하고 의미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소 타고서 소 찾고 있음 깨닫는 것이 명상 목적

누구나 찾아 헤매는 행복이나 진리는 내 마음을 벗어나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지닌 마음이 가장 지혜로운 행복의 씨앗이다. 세상 모두가 옳다고 하는 것도 내가 믿지 못하고 공감할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남들이 아무리 나에게 행복한 사람이라 해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면 어찌 행복하겠는가. 행복의 파랑새는 먼 곳에 있지 않고, 나의 집 창가에 살고 있다. 날마다 되풀이되는 평범한 일상이 바로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내 안에 있는 희망을 일깨우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을 부르는 지름길이라는 마음가짐이 이 책이 강조하는 소중한 덕목이다.

▲저자 **김충현**은?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했고,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수학했다. 논문으로 〈승조(僧肇)의 보편적 인식체계연구〉 〈달라이 라마, 그는 누구인가〉가 있다. 또한 저서로는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이 담긴 〈당신의 적이 당신의 스승입니다〉 〈하바드의 달라이 라마〉 〈쿤둔〉 〈네발 달린 명상가〉 〈자비 명상〉 등이 있다. BTN 불교TV 프로듀서를 거쳐 현재는 BBS 불교방송 춘천총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림 그린 **고성원 작가**는?

서울대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책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암각화에서 이중섭까지〉 〈선암사 연두 꽃잎 개구리〉 〈이솝우화로 배우는 경제〉 〈지치고 힘들 때 읽는 책〉 등의 그림을 그렸다.

佛法 되새김질하며 詩心 풀어내



다만 나는 영원한 것에 귀의한다
장천수 지음
올리브나무 펴냄/1만2천원

현대의학으로도 제대로 원인과 치유법을 밝히지 못한 극심한 상기증(강박신경증) 환자인 시인의 삶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는 듯한 일들이 다반사였다. 무어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었다. 그는 현실이라는 꿈속에서 늘 가위눌려 살아야 했다.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다 놓쳐버린 시인은 변두리에서 내내 비주류로 머물면서 '삶을 통찰' 하는 지혜를 배우기 시작한다. 영혼의 치유자인 인류의 스승 붓다와 대행 선사의 말씀을 치유의 비방으로 되새김질하며 운명처럼 시를 붙잡아 마치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한(恨)을 풀어내듯 시를 써왔다.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닥치더라도, 텅 빈 마음으로 조금도 경황의 기색이 없이 이승의 골짜기를 건너고 싶다는 염원을 품은 시인이 고독을 날줄로, 그리움을 씨줄로 삼아 직조해 낸 '도(道)가 잉태하고 자라는 자리로서의 시편들이다.

선승들이 화두를 품고 살 듯이, 이제 시인은 자신의 정체성과 세계의 모든 생명들에 대해 커다란 물음표를 그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물음들은 시가 되어 그의 마음속에 둥지를 틀기 시작한다. 그의 인생 주조음이 된 고독은 그로 하여금 이렇게 노래한다. "온 세상의 실상이 고독한 것임을/깨달음같이 내가 퍼뜩 보았을 때/그제야 고독은 내게 빙긋이 웃으며/바람처럼 한세상 지나가라 했고/물처럼 한세상 흘러가라 했고/구름처럼 한세상 떠돌다 가라 했네."

세상의 방관자로서 그의 가슴에 자리잡은 고독은 근원을 알 수 없는 그리움을 불러오고, 그리움은 생명의 근원에 대한 탐구로 이어진다. 그러기에 잡초들이 아스팔트 틈새에서, 쓰레기 널린 공터에서, 흙먼지와 매연을 뒤집어쓰고 "기를 쓰고 뿌리를 박고/기를 쓰고 잎을 피우고/ 기를 쓰고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희망을 보자고/무슨 영화를 보자고/무슨 빛을 보자고" 그렇게 기를 쓰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알 수가 없다" 고 고백한다. "생은 진실로/차별 없이 존엄하고/아무것도 버릴 게 없었다/그냥 숙연해졌다"(〈생은 진실로〉)라고 물음표와 느낌표가 함께 춤 추는 듯한 '뭉클함' 을 토로한다.

세상의 어느 시인이 한 송이 장미꽃을 보고 '기적' 을 노래했듯이, 시인은 빨갛게 노랗게 파랗게 피어난 꽃들을 보고는 "무슨 한(恨)들을 곱게 삭여 빚은 넋들"이냐고 느낌표를 표하면서, "봄은/해탈의 계절"(〈해탈의 계절〉)이라고, 지금 여기에 이미 무르녹아 있는 도(道)를 노래한다. 시인이 앞으로 더욱 더 지향하고 노래하고자 하는 바는 시편들의 여기저기에 드러나 있다. 시인은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를 변용 인용하면서, "그러니 이제는/'세상을 향한 독설을 거두고/내 손 안에 보이는 천하의 보물 쥐지는 못해도' /내 내면에 숨겨진 천하의 보물 지녔으니/빙긋한 미소로 천하의 보물 숨겨진/나의 내면을 주시하며 터덜터덜 가보자//그리하며 가다가 보면/내 내면에 숨겨진 천하의 보물과 불현듯 마주치며/틀이 바뀌고/꼴이 바뀌어 /운명이 바뀌어서/'산봉우리 저쪽에 자신의 얼굴을 숨기며/지혜와 자비의 양 날개로/하루 만 냥을 흩어 쓸 수 있는/신령스러운 독수리 되어 있을 게 분명할 게다' "(〈신령스러운 독수리〉)라고 다짐한다.

저자, 극심한 상기병앓아
삶은 고통과 괴로움 연속
비주류 머물며 삶을 통찰

시인이 가리켜 보이는 "봄이 겨울을 밀어내는 노래" "고목에 꽃이 피는 노래" "애벌레가 허물을 벗는 노래" "쓰레기가 거름이 되는 노래" "아픔이 삭아져 힘이 되는 노래"(〈다시 시작하는 노래〉)는, 나와 너의 상대적인 구별이 없어져서 집착하여 취할 일이 없고, "일체 번뇌서 떠나 더 비울 게 없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세상의 주인공〉) 길 위서 불리어지게 될 것이다.

대행 스님이 가리켜 보였던 주인공 자리는 '주인' 이라고 하지만 부리는 대상이 없이 텅 텅 비어 있는 주체이고, 주체라고 하지만 객체가 따로 없다. 그것은 시인이 "아프니까 사람이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사람이라서 내가 아파/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고/사람이라서 내가 외로워/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알아/너와 내가/따로따로가 아니고/모래알 모래알이 아니고/밥알 밥알이 모여서 된 밥덩이가 되어/서로가 서로에게 사람의 정을 떠먹이며/서로가 서로에게서 사람의 정을 떠먹으며 살며/달처럼/세상을 환하게/해처럼/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거다/나무처럼/세상을 싱그럽게/꽃처럼/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거다"라고 노래했듯이(〈사람은 그래야 하는 거다〉), 나와 너와, 나와 자연이, 나와 우주가, 하나로 통섭되는 한마당이다. 그 자리에서는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따로 하지 않고, 찾는 자와 찾아지는 진리가 따로 하지 않는다. 진정한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되찾게 될 때, 시간은 더 이상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지 않고 '영원한 현재' 만을 노래 부를 것이다.

김주일 기자



경주 신라 사찰 출토 성보 '한자리에'


신라 왕경 유적 출토 금동불입상

동국대 경주 박물관 · 국립경주문화재硏 공동 특별전

5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황룡사지 · 분황사 등 발굴된
금동불입상 등 2백여점 전시
동국대 학생 사진 작품 선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천년고도 경주의 신라 사찰에서 출토된 불교 성보 문화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관장 송은석)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는 "5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이(不二): 둘이 아닌 하나' 특별전시를 연구소와 박물관에서 공동개최한다"고 5월 20일 밝혔다. 개막식은 5월 27일 오후 2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 앞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황룡사지, 분황사, 사천왕사지, 감은사지 등 경주 지역 신라 절터 발굴을 통해 출토된 불교문화재들을 한자리에 모아 소개하는 자리다.

또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지난해부터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함께하고 있는 문화유적 공동 발굴조사를 확장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지방대학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고고학 · 미술사학 등 문화재 분야의 교육과정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역대학 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시는 2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천존고 전시실에서 열리는 '흙 속에서 찾은 신라불교문화' 전시는 신라 사찰의 생활, 장엄, 의례와 관련한 유물을 새롭게 공개하는 자리이다.

신라 왕경의 중요사찰 유적 중 하나인 분황사, 사천왕사지, 인왕동사지에서 발굴한 통일신라 치미(鴟尾)가 공개된다. 치미는 목조건물의 용마루 양 끝을 장식하는 기와로 부정한 기운을 내쫓는 벽사의 기능과 함께 장식효과를 주어 건물의 위엄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2020년에 황룡사지에서 출토되어 주목된 바 있는 금동봉황장식자물쇠도 처음 선보인다. 이외에도 소형금동불상, 소탑, 석조비로자나여래좌상 등 경주지역 절터에서 발굴한 200여 점의 유물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신라불교문화에서 찾은 청춘' 전시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 전시실에서 진행되며, 1부 전시에 출품한 유물이 가진 본연의 아름다움을 작가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개성 있는 사진과 영상 작품들이 공개된다. 전시에 참여한 사진작가는 모두 20~30대로 젊은 작가가 1300년 전의 신라불교문화를 직접 보고 느낀 감정과 여운을 개성 있게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불교문화에서 찾은 청춘' 전시는 미래의 고고학자 · 미술사학자 · 문화재 연구자로 활약할 동국대 경주캠퍼스 대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작품도 함께 소개한다는 점에서 보다 큰 의미가 있다. 지난 4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등 재학생 9명을 대상으로 문화재 사진 촬영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출품한 사진은 당시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유물 사진이다.

이번 전시는 무료이며, 별도 예약 없이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4시 30분까지 입장),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해 전시실 동시 관람인원은 15명으로 제한하며, 모든 전시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운영할 예정이다.

송은석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장은 "'不二: 둘이 아닌 하나' 전시는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신라와 그 역사를 천년동안 지켜 온 경주가 청춘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두 전시는 각각 다른 장소에 열리나 서로 관계 속에 있는 '둘이 아닌 하나'의 전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전시는 가까운 미래에 문화재 연구자가 될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월성 해자서 발굴된 금동불입상

성철 스님 소장 고문헌 120종 'DB화'

동국대 ABC사업단 도록 발간
주요 문헌 이미지 · 해제 수록
불교전서 · 영인본 등 14종발행

조계종 종정을 지낸 퇴옹 성철(退翁性徹, 1912~1993) 스님이 소장했던 고문헌은 2231책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이중 한국 · 중국 간행본 등 주요 문헌 120종이 데이터베이스(DB)화돼 도록으로 발간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불영 자광)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ABC) 사업단(이하 ABC사업단)은 "한글본 한국불교전서 11종, 귀중 불서 영인본 2종, 도록 1종 등 총 14종을 간행했다"고 5월 20일 밝혔다.

역주편찬팀이 주도한 이번 출간은 서적의 분량 면에서 단연 돋보인다. 정해진 연구진과 많지 않은 재원으로 난해한 역주서와 귀중한 불서를 한 학기에 14권이나 발행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현대 한국불교의 선지식 성철 스님의 소장 문헌에 대한 도록인 〈성철 스님의 책: 백련암 소장 고문헌 도록〉이다.



이 책은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 사업단에서 2017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경남 합천 해인사 백련암에 소장된 성철 스님 소장 고문헌을 조사 · 촬영한 결과를 소개하는 도록이다. 조사 대상이 된 고문헌은 국내 간행 불교 고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간행된 불교 고서와 일부 외서류 등을 포함한 총2231책이다.

그중 한국 간행본 40종, 중국 간행본 60종 그리고 백련암에 전래된 배경을 알 수 있는 20종 등 주요문헌 120종에 대한 이미지와 해제가 본 도록에 수록돼 있다. 또한, 함께 게재된 조사 개요와 남권희 경북대 명예교수의 논고 '해인사 백련암 소장 한국본 불서의 현황과 가치'는 소장 문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전체 2231책에 대한 간략 서지사항도 도록에 수록되어 있다. 백련암 소장 고문헌에 대한 상세 서지사항과 이미지 자료는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서비스 시스템(kabc.dongguk.edu)'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출간된 한글본 한국불교전서는 총 11종으로 △〈해심밀경소 제5 무자성상품〉 △〈선문염송염송설회회본 1〉 △〈현정론 · 유석질의론〉 △〈월봉집〉 △〈정토감주〉 △〈다송문고〉 △〈소요당집 · 취미대사시집〉 △〈선원소류 · 선문재정록〉 △〈치문경훈주 상 · 중 · 하〉이다. 영인본은 2종으로 △〈법화현론 권3 · 4〉 △〈인명입정리론소초 권5 · 6〉이 발간됐다.

동국대 ABC사업단은 "시대별 고승들의 사상이 담긴 한글본 한국불교전서는 신라에서 조선 후기까지 천년을 훌쩍 넘는 시간을 아울렀고, 동시에 귀중한 불서의 영인본(원본을 촬영해 복제한 인쇄물)과 고문헌의 도록이 포함됐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ABC사업에서 쌓인 내공은 내용적으로도 한국불교학의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천태종, 제6회 예술공모전 작품 공모

10월 13~14일 접수, 불화 · 조각 등 4개 부문

문화재청장상 신설돼
11월 24~29일 전시회

다양한 예술분야의 저변확대를 통한 문화융성에 노력해온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제6회 천태예술공모대전을 개최한다. 공모부문은 불화(전통 · 현대) · 조각 · 공예 · 민화 등 총4개 분야이며, 작품은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관문사(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로 접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문화재청장상(최우수상)이 신설됐다.

불화는 200호 미만, 가로×세로 400㎝ 이하여야 하며, 표구된 완성작품만 접수할 수 있다. 조각은 높이 250㎝ 미만, 가로×세로 400㎝ 이하, 무게 500㎏ 미만이며, 조립한 완성작을 제출해야 한다. 공예는 높이 200㎝ 미만, 가로×세로 400㎝ 이하여야 하며, 민화는 높이 200호 미만, 가로×세로 400㎝ 이하의 작품을 액자 제작 후 접수해야 한다.

각 부문 모두 1인당 3점까지 출품할 수 있으며, 출품료는 1점당 5만 원이다. 대학생의 출품료는 1점 당 3만 원이며, 학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전 부문 작품 제작과정을 담은 세부 작품설명이 필요하며, 유리 액자로는 제출할 수 없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된다. 기 발표작 · 표절작 · 사찰 봉안 및 판매된 작품, 타인 명의 출품은 불가하다. 초대작가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작가 점수는 제공되지 않는다.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명에는 상금 2000만 원과 상장 · 상패가 주어지며, 작품은 천태종에 귀속된다. 최우수상(문화재청장상) 1명에는 상금 700만 원과 상장 · 상패, 우수상(4명)에는 상금 각 200만 원과 상장 · 상패, 장려상(4명)에는 상금 각 50만 원과 상장 · 상패, 특선(약간 명)에는 상장 및 상품, 입선에는 상장, 특별상(약간 명)에는 상장 및 기념패를 수여한다.

출품 서류는 출품원서(소정양식) 1부, 작품설명서(소정양식) 1부, 대학생 학생증 사본 등이다. 공모요강과 출품원서는 6월부터 금강신문 홈페이지(www.ggb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결과는 금강신문 홈페이지 게재 및 문자로 개별 통보한다. 수상작 전시회는 11월 24~29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진행되며, 시상식은 전시회 기간 중 열린다.

(02)547-4746(천태예술공모대전 사무국)

박재완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 부처님 성도지 인도부다가야에 한국사찰 분황사를 건립합니다.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를 건립합니다.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합니다.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를 건립합니다.
- 불교 병원·요양원을 건립합니다.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기금을 마련합니다.
- 경주 남산 열암곡에 넘어져 계신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웁니다.
- 10.27 법난기념관을 건립합니다.
-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을 건립 합니다
-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가칭)나눔기금을 조성합니다.

원력과 발심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이룹시다.
지금, 불자님의 참여가 한국불교의 희망입니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원력보살 100만명의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운동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마침내 큰 바다가 되듯이
우리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서
여러분의 각 가정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불법은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모연동참안내

▶ 매일 100원을 발우저금통에 보시
▶ ARS 060-700-0012(1통화,3천원)
▶ 후원계좌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예금주 : 재) 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 문의 02)6273-0108,0109

백만원력결집불사 모연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서 기부됩니다.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이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입니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조감도


계룡대 호국 홍제사 조감도


세종시 광제사 대웅전 조감도

www.buddhism.or.kr

대한불교조계종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20

▶ 21회 예고
웃자인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이번에도 빈두사라는 아쇼까를 부왕으로 보내고 싶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한다. 칼라따까 제관은 아쇼까의 어머니 다르마를 찾아가 설득한다. 마침 왕궁에 왕자독살 미수사건이 일어난다.



두 번째 부인 아상디밋따를 만나다

아쇼까는 아내 빠드마바띠가 죽은 것을 알고는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 다르마 왕비별궁에 가서 꾸날라를 보고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강가강으로 나와 말을 탔다. 탁실라에 있는 동안 아내의 죽음을 숨긴 아버지 빈두사라가 원망스러웠다. 어머니 다르마도 원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빠딸리뿌뜨라 궁궐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아내의 죽음을 자신만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쇼까는 도티를 입은 채 강가강에 풍덩 뛰어들었다. 뜨거워진 몸을 식히느라고 몇 번이나 자맥질을 했다. 비로소 그의 큰 눈과 코가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났다. 말먹이꾼은 어느 새 작은 배에 말을 태운 채 아쇼까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쇼까가 강물 속에서 나오지 않자 말먹이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왕비님께서 별궁으로 왕자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알았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이렇게 하루가 가는구나."

말먹이꾼은 아쇼까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았다. 아쇼까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강가강을 건너면서 '아, 나를 속였구나, 나를 이용했구나.'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곤 했던 것이다. 어머니 다르마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아버지 빈두사라는 아쇼까를 속이고 이용한 측면이 있었다. 탁실라에 가 있는 아쇼까에게 빠드바마띠가 죽었다는 소식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었기에 그랬다. 젊은 시절, 기마군사를 교육시킨 적이 있는 군관 출신의 늙은 말먹이꾼이 말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대왕님께서는 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인데 어찌 비정해야 한단 말이냐?"

"대왕님께서는 탁실라의 반란을 오직 왕자님만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자님이 흔들릴까봐 그러셨을 것입니다."

"너는 말먹이꾼으로서 어찌 대왕님의 마음을 잘 아느냐?"

"왕자님께 오기 전까지는 칼라따까 대신님의 말먹이꾼이었습니다. 대신님께서는 저에게 온갖 얘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말먹이꾼은 아쇼까를 내심 놀라게 했다. 그의 말에는 지혜와 논리가 있었다. 군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미천한 마구간지기와는 달랐다. 아쇼까는 강가강을 건너 자신의 별궁으로 가지 않고 다르마 왕비별궁으로 올라갔다. 강물에 젖었던 도티와 바지는 건조한 강바람에 말라 고슬고슬했다. 다르마는 오후 내내 아쇼까를 기다렸다는 듯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말먹이꾼은 말고삐를 잡고 풀밭으로 사라졌다. 다르마가 말했다.

"아쇼까야, 나를 원망하지 마라. 빠드마바띠는 내 앞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꾸날라를 부탁한다고도 말했다."

"어머니, 빠드마바띠가 죽었다는 소식을 왜 전해주지 않았어요?"

"대왕의 명이었다. 네가 슬퍼할까 봐 누구도 입을 열지 말라고 했다."

"이 말씀을 하려고 저를 불렀습니까?"

"그래. 네가 나를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아 불렀다. 아쇼까야,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느냐? 너에게 지금 이 말이라도 하고 나니 괴로움이 조금 가시는구나."

그때 궁녀가 어린 꾸날라를 안고 왔다. 꾸날라는 아쇼까를 보더니 경계했다.

"꾸날라야, 네 아버지다."

다르마가 눈짓을 하자 락슈미띳사가 꾸날라를 아쇼까에게 안겼다. 아쇼까는 꾸날라를 안더니 눈물을 보였다. 꾸날라는 큰 눈을 껌벅거리며 다르마에게 가겠다고 발버둥쳤다. 다르마가 꾸날라를 양모처럼 길렀음이 분명했다. 아쇼까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어머니, 가서 쉬겠습니다."

"예전처럼 스승을 구해 만나거라. 너는 아직도 왕자로서 배워야 할 것이 많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베살리로 간 목갈라뿟다띳사를 다시 부를까?"

"아닙니다. 라다굽따 제관님이 있지 않습니까? 당분간 혼자 지내고 싶습니다."

아쇼까가 일어서자 다르마가 만류했다.

"사실은 대왕님이 이곳으로 오시기로 했다. 그러니 잠시만 여기 있거라."

"저는 대왕님을 나중에 뵙겠습니다."

아쇼까는 다르마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휙 일어나 나가버렸다. 다르마가 "아쇼까야, 아쇼까야" 하고 불렀지만 소용없었다. 락슈미띳사가 문밖까지 쫓아나가 보았지만 아쇼까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락슈미띳사가 다르마에게 말했다.

"왕비님이시여, 왕자님께서 대왕님을 지금 만나는 것은 좋지 않을 듯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해는 저절로 풀리니까요." "대왕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좋을 일이 뭐 있겠느냐. 나는 그것이 걱정스럽구나."

강가강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질 때마다 불어오는 강바람이었다. 강바람에는 궁중정원에서 피어나는 꽃향기가 묻어 있었다. 다르마는 꽃향기를 맡으면서 심란한 마음을 달랬다. 강바람에 꽃향기라도 맡으니 위로가 되었다.

빈두사라는 초저녁을 훌쩍 넘긴 시각에 왕비별궁으로 왔다. 달이 궁중정원 숲 위로 올라 달빛을 뿌렸다. 다르마와 락슈미띳사가 왕비별궁 정문 밖까지 나와 맞이했다. 빈두사라는 연회를 파하고 오는 듯 입에서 포도주 냄새를 풍겼다.

"왕비여, 꾸날라는 탈이 없지요?"

"양모를 구해야 할 텐데 걱정이옵니다."

빈두사라는 술을 많이 마셨는지 약간 비틀거렸다. 락슈미띳사가 놀라 가까이 다가섰다가 물러났다.



"대취했소. 신하들을 내보내고 난 뒤 혼자서 더 마시고 이곳으로 왔소."

"기쁜 일로 드셨사옵니까?"

"왕국에 기쁜 날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소. 이번에는 웃자인 지방이 시끄럽소. 늘 변방소국이 문제요."

웃자인은 바라나시에서 남서쪽으로 십여 요자나 거리에 있는 아반띠국의 수도였다. 남인도와 북인도 사이에 있어 상인들의 발길이 잦은 무역이 발달한 나라였다. 방으로 들어온 다르마가 화제를 돌렸다.

"아쇼까를 결혼시키면 손자 꾸날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옵니다."

"맞소. 새 왕자비가 오면 꾸날라도 좋을 것이오."

"제 생각도 그렇사옵니다."

"왕자비가 될 사람을 보기라도 했소?"

"마침 빠딸리뿌뜨라 성 안에 조용하고 착한 여자가 있사옵니다."

"이 일은 왕비가 알아서 하시오."

다르마는 빈두사라의 눈치를 보아가며 말했다. 아쇼까가 사람들을 불신하고 있다는 말은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평소에도 빈두사라가 아쇼까의 행동을 탐탁지 않게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빈두사라의 허락을 받은 다르마는 락슈미띳사에게 말했다.

"어제 대왕님께서 나에게 일임했다. 그러니 너는 아상디밋따 집에 가서 대왕님이 허락했다고 전하거라."

"잘 됐습니다. 왕비님. 아상디밋따 부모는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더 없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더냐?"

"원래 브라흐민이었는데 너무 가난하여 수드라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딸이 왕궁으로 들어오면 살림도 펴지지 않겠습니까?"

빠딸리뿌뜨라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딸이 왕비나 왕세자비가 되는 간택이었다. 그러면 세금이 면제되고, 궁에서는 경사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진귀한 물품을 내려 보냈다. 그러한 물품을 시장에 내다 팔면 바로 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다.

다르마는 아쇼까별궁으로 찾아갔다. 마침 아쇼까는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낮잠을 자고 있었다. 다르마가 손을 잡아 흔들어대자 그제야 아쇼까가 잠에서 깼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너에게 경사가 생겼다."

"경사라니요?"

"꾸날라를 키워줄 새 엄마가 생길 것 같다. 너만 좋으면. 나이 들어가는 내가 무슨 수로 꾸날라를 잘 키울 수 있겠니."

아쇼까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꾸날라를 키워줄 여자라는 말에 정신을 차렸다.

"어떤 여자인가요?"

"이름은 아상디밋따인데 브라흐민 딸이다. 락슈미띳사가 직접 보았는데 아주 얌전하고 착한 여자라고 하더구나."

"꾸날라를 잘 키워주기만 한다면."

"그럼, 결혼하겠다는 것이냐?"

"그 여자가 꾸날라를 잘 키울 것이라고 하니까요. 굳이 결혼식이 필요하겠어요? 양모처럼 들어와 살면 되겠지요."

"내 말을 믿어주니 고맙구나. 오늘 밤에라도 아상디밋따를 내 별궁으로 불러들일 테니 와서 네 눈으로 확인해 보거라."

"그럴게요. 꾸날라를 얼마나 잘 대해 줄지 시험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다르마는 밤까지 기다리지 못했다. 락슈미띳사에게 아상디밋따와 그녀의 아버지를 데리고 오도록 지시했다. 아상디밋따와 꾸날라가 친해질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꾸날라가 아상디밋따를 따르지 않으면 아쇼까가 돌아서버릴 수도 있었다.

잠시 후, 아상디밋따와 그녀의 아버지가 왕비별궁으로 왔다. 다르마는 아상디밋따를 보는 순간 마음이 놓였다. 락슈미띳사의 말대로 아상디밋따는 차분하고 조용했다. 다만 옷차림이 너무 초라하여 측은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그녀 아버지는 다르마를 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딸을 행복하게 해줄 터이니 안심하시오."

"가문의 영광이옵니다. 눈이 부시어 고개를 들지 못하겠사옵니다."

"이제 사돈의 인연을 맺을 터이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의 딸은 왕자님께 순종하고 왕자님의 아드님을 친 아들처럼 기르겠다고 인드라 신께 맹세했사옵니다."

남루한 옷차림과 달리 브라흐민의 피가 흐르는 그녀의 아버지 말투는 진중했다. 다르마가 아상디밋따를 쳐다보며 말했다.

"거룩한 마음을 내었다고 하니 고맙구나."

"인드라 신께 맹세했으니 제 마음은 반석 같을 것이옵니다."

"오, 착하기도 해라."

다르마는 락슈미띳사를 불러 지시했다.

"아상디밋따를 별실로 데리고 가서 내 비단 사리를 입히고 보석으로 된 발찌와 팔찌를 주거라."

"예, 알겠습니다."

"꾸날라도 데리고 오거라."

걸음마를 막 시작한 꾸날라는 궁녀들이 돌보고 있었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아상디밋따는 전혀 다른 여자로 보였다.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왕족처럼 고상하게 보이기까지 했다. 다르마는 아쇼까가 보면 단번에 반할 것이라고 흡족해 했다. 그런데 더 놀랄 일이 벌어졌다. 락슈미띳사 가슴에 안긴 꾸날라가 아상디밋따에게 가려고 손을 내밀었다. 꾸날라가 친엄마를 만난 듯 아상디밋따 품에 안겨서 까르르 웃었다.

그날 밤이었다. 달빛이 왕비별궁 지붕에 쏟아져 내렸다. 달빛을 받은 정원의 공작야자수 이파리들이 반짝거렸다. 공작야자수 이파리들은 독수리 날개처럼 크고 의젓했다. 초저녁에 왕비별궁으로 온 아쇼까는 꾸날라를 보듬고 있는 아상디밋따를 보자마자 미소 지었다.〈계속〉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봉
종도일동
KBB한국불교방송주식회사, KBB한국불교방송신문, 월간시사뉴스, KBB한국불교방송자문위원회, KBB한국불교방송불자총연합천불회
사)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본산
총무원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4 문경백봉사 TEL 1577-1016, 054-571-6973,1030(협의회) / 팩스 : 054-571-7498
방송국 :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545번지 예림빌딩 606호 TEL 1670-2010

박희승의 禪, 세상을 만나다 ⑩ 무아공과 선



▶ 한줄 요약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빠져나오라.

생사 윤회 본래 없음 깨닫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지구 이상 기후로 세계 인류가 극심하게 병과 죽음의 고통을 받는 지금, 우리는 부처님의 깨달음 중도를 바로 알아 마하 지혜로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대자유로 속히 건너가야 한다.

불교 '무아 공'과 힌두교 '아트만'

〈반야심경〉의 핵심은 앞에서 강조하였듯이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다' 이다. '나' 라는 오온(五蘊)이 모두 연기, 무아이니 공하다. 나라고 할 실체가 없다. 이것이 불교의 기본이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 브라만(지금의 힌두)교에서는 '나' 를 아트만(我, Ātman)이라 하여 우주를 주재하는 절대 신인 브라만(梵, Brahman)의 분신으로 보고 실체가 있다고 보았다. 우주의 실재인 브라만과 그 분신인 나는 실체가 있으니 생로병사하고 죽어서 다음 세상으로 가는 윤회를 말한다. 흔히 윤회(輪廻)를 불교 사상으로 알고 있는데, 부처님 이전부터 인도 종교계의 공통된 입장이며, 서양에서도 고대에 윤회 사상이 있었다.

싯다르타가 중도를 깨치고 부처가 되어 생사 윤회에서 해탈을 선언한 것이 불교의 출발이다. 부처님은 생사 윤회를 설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한 생사 해탈의 길을 깨치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 불교계에 생사 윤회만을 말하고 깨달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라 힌두교의 입장이다. 특히, 내가 실체가 없는 무아, 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아트만처럼 실재하는 나, 깨칠 나, 윤회하는 나, 생로병사 하는 나가 있다고 보면 힌두교의 해석이 된다. 흔히 진아(眞我), 참나, 주인공과 같은 말도 무아 공의 입장에서 사용하면 합당하나 힌두교의 아트만처럼 실체가 있다는 견해라면 불교가 아닌 외도가 되어 버리니 정견을 잘 세워야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지금 우리 불교계에 불교의 무아 공과 힌두교의 진아(眞我) 아트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견해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대승 사상이 일어날 무렵에도 이 무아에 대한 견해에 오해와 혼란이 많았던 모양이다. 대승 사상을 집약한 〈반야심경〉에는 '오온이 공' 함을 역설한 뒤 '모든 법(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不生不滅),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不垢不淨), 늘지도 줄지도 않음(不增不減)' 을 설한다. 여기에서 '법(法)' 은 부처님이 깨친 우주 만물의 존재원리, 진리를 말한다. 우주 만물은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불생불멸' 이다.

왜냐? 일체 만물이 연기, 무아, 공이기 때문이다.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으니 나는 것도 멸하는 것도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무아(無我), 무상(無相), 공(空)이라 한다.

선(禪)에서는 이 무아와 공, 불생불멸의 도리를 생사일여(生死一如) 또는 중생이 본래부처라 표현한다. 나와 우주 만물은 본래 실체가 없으니, 삶과 죽음이 본래 하나이고, 번뇌와 지혜가 따로 없으며, 중생이 본래부처라 한다. 참 어려운 말이지만, 선은 대승의 이 깊은 진리인 무아, 공을 우리 일상에서 정견하여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며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것도 분별망상일 뿐 본래는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친다.



한암 스님의 좌탈입망 모습. 현대불교자료사진

괴로움도 실체가 없는 법
무아 공 정견하면 지혜가
영원한 대자유의 길 찾자

무아이니 생로병사도 본래 없다

'나' 라는 오온이 공하니 나라고 할 실체가 없다.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불교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생들은 늘 나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고 보니 생로병사의 괴로움에 시달린다. 죽음과 더불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병이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전히 코로나19와 같이 알 수 없는 바이러스와 병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부처님도 인간의 근본 문제인 생로병사에 대한 해결을 위해 위대한 출가를 결단하고 중도를 깨치고 생사 윤회에서 해탈을 선언하였다.

부처님이 깨치고 보니 생로병사라는 것도 '내가 있다' 는 착각이 낳은 분별망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반야심경〉에서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다' 고 한다. 가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인류 문명사에서 인간의 생로병사만큼 큰 문제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데, 부처님은 이 생로병사가 본래 없고 '내가 있다' 는 착각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님이 깨달음의 길로 제시한 마하 지혜를 밝혀 '내가 있다' 는 양변에 떨어져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받지 말고 무아 공의 정견을 세워 해탈의 대자유로 가야 한다. 내가 있다고 보면, 병도, 늙음도, 죽음도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그러면 죽어 영혼도 있게 되니 다음 세상도 지옥과 극락도 가는 윤회를 피할 수 없다. 무아 공의 정견을 세우면 나도 없고 병도 죽음도 없고 영혼도 없으니 집착할 것도 괴로워할 것도 생사 윤회도 본래 없는 법을 깨친다.

부처님과 선사들의 열반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 하였을까? 깨달음으로 생사 윤회의 해탈을 선언한 부처님께서는 80세에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의 상한 버섯 요리 공양을 드시고 심한 설사를 하시다 열반에 든다. 이때 부처님은 죽음을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에게 상한 음식을 공양한 쭌다를 연민하셨다. 부처님은 당신이 열반에 든 뒤 쭌다가 대중의 지탄을 받아 잘못되는 것을 우려하고 일부러 아난을 보내어 쭌다를 위로해 주게 한다. 부처님은 당신의 죽음을 고뇌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쭌다를 더 배려함으로 병과 죽음에서 해탈하였음을 증명하였다.

죽음에 대하여 초연한 분으로 조계종 초대 종정 한암 스님의 행적이 감동이다. 오대산 상원사에 주석하던 한암 스님은 한국전쟁 당시 1.4후퇴 때 국군이 청야작전으로 월정사를 불태우고 상원사까지 불 지르러 오자 가사 장삼을 수하고 법당에 올라가 삼배를 한 뒤 좌선 자세로 앉아서 불을 붙이라 하였다. 군인들이 놀라서 스님께서 앉아계신데 어떻게 불태우겠느냐고 나오라 사정해도 한암 스님께서는 미동도 하지 않으셨다. 급기야 군인들은 상원사 소각을 포기하고는 스님께 허락을 구한 뒤 법당 문짝만 몇 개 떼어 불태우고는 물러갔다. 이후 한암 스님께서는 실제 법당에서 가사 장삼을 수한 뒤 좌선하는 자세로 열반에 들었다. 앞서 육조 혜능 대사의 열반상과 마찬가지로 한암 스님도 좌선하는 모습 그대로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닌 도리를 보여주셨다. 당시 불자인 군종장교가 스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앉아서 돌아가신 한암 스님의 법구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일간 신문에 크게 실려 세상에 큰 화제가 되었다. 한암 스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평상시처럼 좌선하다 가신 것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이나 육조 혜능 스님이나 한암 스님이나 병과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생사가 둘이 아닌 불생불멸의 도리를 그대로 행하셨다. 선사들 중에는 이런 불생불멸, 생사불이의 도리를 알려준 열반이 수 없이 많다.

내가 없으니 고집멸도도 지혜도 본래 없다

〈반야심경〉에서 나도 없고, 생로병사도 본래 없으니 불생불멸이고 더러움도 깨끗함도 본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영원한 대자유로 가야 한다.

그런데, 부처님의 무아 공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꾸 '내가 있다' 고 보아 생로병사도 있고, 연기하는 나, 깨달음을 구하는 나가 있다는 양변에 떨어지니 분별망상이 일어나 생사 고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깨치고 첫 설법에서 중도를 깨쳤노라 하지만, 다섯 수행자는 중도를 알 수 없었다. 부득이 중도를 팔정도, 여덟 가지 바른 길로 자상하게 풀어서 제시하였다. 이렇게 중도와 팔정도를 설해 주어도 깨치지 못하자, 부처님은 다시 고집멸도의 사성제(四聖諦)를 설한다. 그때 "집법(集法)이 곧 멸법(滅法)이다" 는 부처님 설법을 듣고 마침내 꼰단냐가 처음으로 깨치고 이어서 나머지 네 수행자도 다 깨달았다.

지금 팔리어로 된 초기경전만을 중시하는 남방불교에서는 팔정도와 사성제를 근본교리로 삼으면서도 중도는 아예 언급하지 않는 흐름도 있고, 이와 달리 중도를 중시하는 흐름도 있다.

북방의 대승과 선종에서는 중도, 무아, 공을 중시하면서도 사성제는 방편으로 본다. 즉, 본래성불의 선에서 볼 때 괴로움인 고(苦)는 무아 공을 모르고 '내가 있다' 는 착각에서 일어난 것이다. 자기를 무아 공으로 정견하면 괴로움도 실체가 없는 것이니 착각에서 깨어나 본래 완전한 연기로 돌아가는 것이다.

두려움과 착각서 깨어나 완전한 열반으로

오온이 공하니 생로병사도 고집멸도도 지혜도 얻음도 본래 없다는 〈반야심경〉은 곧 선과 직결된다. 괴로움도 죽음도 '내가 있다' 는 착각에서 일어나니 그 착각 망상을 완전히 비우면 깨달음이고 본래 부처로 돌아간다.

어떤 분들은 이를 두고 "뭘 닦고 깨칠 것도 없다. 그냥 놓아버리면 된다. 이것 밖에 다른 것이 없다. 깨달음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본다. 이런 말에 속으며 안 된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반야심경〉의 "나도 없고 지혜도 얻음도 없다"는 마하 지혜는 깨달음도 아무 것도 없다는 허무주의나 적멸에 머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견해는 유와 무, 유위와 무위, 유아와 무아의 양변에 떨어진 견해로 부처님이 깨친 중도의 지혜가 아니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고와 락, 유와 무, 번뇌와 지혜의 양변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을 성취하여 자유자재하였다. 마하 지혜는 불교의 중도이고 위없는 바른 깨달음이고 완전한 열반이며 자유자재를 말한다. 〈불교인재원 교수〉



밀랍초

(주)선우아이비오에서는 우수성이 이미 널리 알려진 천연 밀랍 양초, 소이 양초를 개발, 유통중에 있습니다.
소량의 밀납 성분이 함유된 이름만 밀납양초가 아닌 천연 밀랍 100% 로 만든 티라이트 양초, 자갠들(유리병초), 연꽃초와 향료, 색소 등을 일체 첨가하지 않고 천연밀랍과 파라핀을 혼합한 윈기둥, 밀대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선우아이비오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41 (쌍문동) | TEL .02)998-7940
선우몰 www.sunwoomall.co.kr | sunwooibo@hanmail.net

반야참회 영상강의 수강생 모집

〈반야참회〉의 저자 혜룡스님의 반야참회 영상강의를 개강합니다.

참회는 불교신행의 기초입니다. 기복신앙뿐 아니라 수행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불자들이 참회법을 잘 몰라서 신행에 혼란과 방황을 겪고 있습니다.
반야참회는 기존 참회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어떤 행위가 악업인지, 그것을 어떻게 참회하는지 등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리하여 기도에는 물론이고, 화두참구나 명상의 보조적 수행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인터넷(Zoom)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반야참회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과 함께, 화상통화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혜룡스님과 문답을 할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하여 반야참회를 접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자인 혜룡스님에게 궁금했던 사항들을 직접 물어볼 수 있습니다.
참회법을 잘 알아서 기도와 수행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싶은 불자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혜룡스님 약력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대학원 석사 졸업, 박사 수료.
- 〈반야참회〉 저술(2012년)
- 범어사, 쌍계사, 화엄사 승가대학 교수 역임.
- 센텀 일심사 주지 역임.
- 서울, 부산 불교방송(bbs)에서 반야참회 소개.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시간 이내.
개강 : 2021년 6월 1일(화)
기간 : 5개월. (강의 진도에 따라 1개월 연장될 수 있음)
회비 : 월5만원. 부부동반 신청과 35세 미만은 월3만원.
교재 : 〈반야참회〉(불광출판사). 교재가 없어도 수강하는데 지장은 없으나, 교재가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됨. 가격은 13,000원이며 서점 구입 가능.
문의 전화 : 010-8995-0743

반야법회(반야참회 신행모임) 홍보팀

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⑩ 싯달타 태자의 사문유관



▶ 한줄요약
구이와 결혼한 싯달타 태자의 관심은 오로지 성문 밖 세상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태자는 성문 밖으로 가서 시찰하기로 한다. '사문유관'의 시작이다. 동문 밖으로 간 태자는 노인을 보고 늙음에 대해 성찰한다.

"목숨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그림 · 강병호

〈석보상절〉 3권의 백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문유관(四門遊觀)'을 읽어보는 시간이다. 지금까지 〈석보상절〉이 그다지 마음에 와닿지 않던 독자라 할지라도 이 글을 읽게 되면 좋아하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다. 오랫동안 내 마음의 경구로 삼았던 '생로병사'의 정의 중 '늙음'에 대한 번뜩이는 사유가 멋지다. 먼저 사문유관의 성찰이 깊어지게 된 인생의 첫 경험, 싯달타 태자와 구이의 신혼 시절을 들여다 보자.

태자, 구이와 결혼하다

그제서야 집장석의 딸이 태자의 부인이 되었다.

재주겨를 때 부처의 나이 열 살이시니 주나라 소왕 35년 기해(B.C. 960년)요, 부인을 맞이한 것은 태자나이 열일곱이시니 주나라 소왕 42년 경오(B.C. 953년)이다.

태자가 부인을 들이시고도 친근하게 하지 않으시니 구이의 마음은 가까이 가고자 하므로 태자가 말씀하셨다. "아름다운 꽃을 우리 사이에 놓고 보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구이가 꽃을 가져다가 놓고 또 태자 곁으로 나아가려 하거늘 태자가 말씀하셨다. "꽃의 이슬에 그대가 젖으리라."

후에 또 백첩을 둘 사이에 놓아두고 보셨다. 백첩(白氎)은 흰 목면이니 서천 말에 가바라(迦波羅)이다. 구이가 또 가까이 오려 하시거늘 태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첩에 때가 묻으리라." 하시므로 구이가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도대체 구이에게 장가가기 위하여 어떻게 한 결혼이란 말인가. 코끼리를 내던지고 팔만 가지의 지식을 겨루고 28개의 북을 화살로 쏘아 맞추고도 모자라 철위산을 뚫고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서야 성사된 결혼이 아니었던가. 경쟁자 조달과 난타, 염광을 이기고서 맞이한 신부 구이와의 결혼 생활은 반전의 연속이다.

신혼의 단꿈을 예상했을 구이의 허니문은 온데 간데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이를 기피하고 있는 새신랑 왕자님이라니…. 구이의 입장에서라면 완벽한 사기 결혼이다.

우리는 물론 태자가 세속에 뜻이 없고 출가하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아버지 정반왕의 염려를 익히 보아왔다. 그러던 그가 집장석의 따님 구이에게만은 첫 눈에 반하여 그 어려운 대결을 기꺼이 수락하고 천신만고의 기량을 펼쳤던 것이 아닌가.

그나마 구이를 다가오지 못하도록 꽃병을 놓게 하거나 꽃이슬로 구이가 젖을까 걱정하는 척하는 것은 귀엽게 봐줄만 하다. 하지만 귀한 흰 천 백첩을 사이에 놓고 흰 천이 때탈까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치사한 처사다. 이것은 마치 시쳇말로 결혼 전에는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굴던 흑기사가 결혼만 하고 나면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아닌가. 〈석가보〉 1권 '서응본기(瑞應本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태자의 나이 17세가 되자 정반왕은 태자비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수천 명 가운데 고르다가 최후에 구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이름이 구이였다. 그는 단정하기가 제일이었고 예의를 모두 갖추었으니 바로 전생에 꽃을 판 여인이었다.(瑞應本起云: "太子年十七 王爲納妃 簡選數千最後一女 名曰裘夷端正第一 禮義備擧 是則宿命 賣花女也")

그렇다. 〈월인석보〉 1권에서는 과거 전생에 연등불께 꽃 공양을 하려는 싯달타의 전생 선혜보살의 이야기가 전한다. 일곱 송이 꽃을 가지고 있던 구이가 선혜에게 꽃을 주고 세세생생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전생담이다. 그때에도 '단정 제일'의 구이는 적극적이고 선혜는 수행자로서 살겠다고 처음에 거절한 전력이 있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는 구이의 서원으로 세세생생 부부가 되었다는 스토리텔링이다. 〈월인천강지곡〉의 게송은 다음과 같다.

사십이장
꽃을 놓으시며 백첩을 놓고 두 분이 한 곳에 앉으시니
꽃 이슬에 젖으리라 백첩에 때 묻으리라 두 분이 갈라 앉으시니

'백첩(白氎)'이 여기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중요한 매개물로 등장하는데 고대에 제작되었던 귀한 직물로 터키어의 면직물을 의미하는 'Pakhta'의 한자어 음역으로 보고 있다. 〈삼국사기〉에도 신라에서 경문왕 때에 40승백첩포(四十升白氎布)를 당나라에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 구이와 결혼 후 거리두는 태자
> 오로지 관심은 성문 밖 세상에
> 동서남북 성문 돌며 민간 시찰
> 동문서 노인을만나 '老' 성찰해

성문 밖서 4苦를 보다

그렇다면 태자의 관심은 어디에 쏠렸을까. 나이도 경전에 따라 분분하지만 〈석보상절〉에서 말하는 이팔청춘이라면 당연히 궁궐 밖 세상 일이 궁금했을 것이다. 성문 밖 사대문에서 벌어지는 '생로병사' 이야기는 지금의 우리에게 자못 의미심장하다.

태자가 나가 노닐면서 염부수 아래 가셔서 밭 가는 사람을 보고 계시니 나뭇가지가 굽어져 햇빛을 가렸다. 정거천(淨居天) 조병(澡餠)이 죽은 벌레로 변해 떨어져 있었다.

정(淨)은 깨끗하다는 것이요 거(居)는 산다는 것이니 탐욕을 여의고 깨끗한 몸이 사는 하늘이니 무변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이다. 조병은 이름이다.

까마귀가 와서 그 벌레를 찍어 먹는 것을 태자가 보시고 자비심을 내시거늘 정반왕이 뒤따라 가셔서 달래어 모셔 왔다.

왕은 태자가 출가할까 걱정하여 풍류하는 여인들을 더하여 마음을 잦아들게 하셨다.

마치 처용이 서라벌 달 밝은 밤에 밤들이 노니는 광경이 연상되지 않는가. 밤이 아니라 낮인 것만 다를 뿐이다. 나뭇가지가 저절로 굽어 햇볕을 가려주는 태자에게 정거천은 기다렸다는 듯이 죽은 벌레로 변해 까마귀의 먹이가 된다. 약육강식의 세계를 본 태자는 차마 못하는 마음, 자비심을 일깨운다.

출가를 할까 태자의 일거수일투족이 걱정인 아버지 정반왕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쫓아가 데려오고 노래와 춤, 음악에 능한 더 많은 엔터테이너 여인들을 태자 곁에 두어 그런 마음을 눅이고 있는 것이다.

정거천(淨居天)은 색계의 네 번째에 있는 다섯 하늘을 통틀어 일컫는다. 산스크리트어 'Śuddhâvāsa-deva'의 의역이다. 정거(淨居)는 정(淨, śuddha: 청정)과 거(居, vāsa: 거주처, 처소)가 합쳐진 낱말로, '청정한 거처(pure abode)'이며 청정한 업(淨業)을 이룬 성인이 태어나 거주하는 처소를 말한다. '불환천(不還天)'이라고도 하는데 윤회를 벗어나 다시는 사바세계에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태자의 출가 안내자 역할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월인천강지곡〉은 이 모든 일이 전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갈파하고 있다.

사십삼장
태자는 무량겁부터 부처이시니 죽어가는 것의 일을 본 적 없어도 어찌 모르시리
정거천 조병이 죽은 벌레 되거늘 태자가 보시고서야 아는 것처럼 하시니

이제 정거천과 합작으로 짐짓 세상의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자비심을 장착한 태자의 눈에 인간의 노병사(老病死)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만고의 명문장들을 만나보기로 하자.

태자가 성문 밖을 보고 싶다 하시거늘 왕께서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마을 고을이며 동산을 깨끗이 꾸며 더러운 것을 보이지 말라고 하셨다.

태자가 동문 밖에 나가시니 정거천이 늙은 사람이 되어 막대기 짚고 가거늘 태자가 보시고 물으셨다. 모시던 신하가 대답하였다. "늙은 사람입니다."

태자가 물으셨다. "어찌 늙다고 하느냐."

대답하되 "예전에 젊던 사람도 오래 되면 늙나니 인생에 늙음을 면할 사람은 없습니다."

면(免)은 벗어나는 것이다. 태자께서 이르셨다. "사람의 목숨이 흐르는 물 같아서 머물지 못하나보다." 하시고 돌아와 들어오셔서 세간의 슬픈 마음이 깊어지셨다.

그렇다. 이 세상에서 늙음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는 것이다. 신하의 설명에 태자의 사유가 기가 막히다. 사람의 목숨을 흐르는 물에 비유하다니…. 한 번도 내 목숨을 흐르는 물로 생각해 다급해 본 적이 없었다. 진작 이런 사유를 알았다면 인생 흐름이 속절없음을 알았다면 젊음이 사라질 것을 재빨리 간파하고 좀 더 현재에 집중했을까. 젊을 때 미래의 막막함과 불안함에 오래 뒤채며 아름다운 청춘인 줄도 모르고 흘려보내는 우를 범하는 것만은 막았을까.

〈석가보〉 1권의 '대선권경'과 비교하면 〈석보상절〉이 더욱 군더더기 없이 명쾌함을 알 것이다.

'해와 달이 흐르고 지나가며 시간이 변하고 세월이 옮겨가면서 늙음에 이르는 것은 마치 번개와 같구나. 이 몸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비록 부귀하다 하더라도 어찌 홀로 면하게 되겠느냐. 어찌하여 세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

다음에는 늙음보다 더욱 명문장인 인간의 병고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 기대하셔도 좋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21세기에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이야기,
성공하고 싶은 지식인들에게 들려주는 영험한 체험기

성제스님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 II·III
148×243㎜ | 찬샘 펴냄 | 값 (각) 13,000원

성제스님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
143×204㎜ | 찬샘 펴냄 | 값 (각)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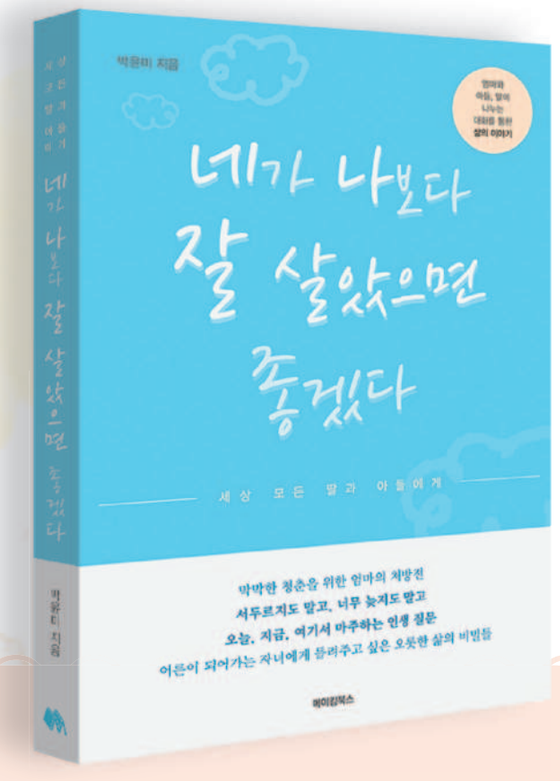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은 법계의 사랑을 받으며 믿을 수없는 기적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가피 영험담을 1년간 써 내려간 것이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II·III**와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계의 불가사의한 가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산문집과 시집이름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부디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맑고 청정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이 행복에너지가 일파만파의 무한 에너지로 승화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이 가득한 가정이되시길 기원합니다.

- 화엄사 **성제스님** 합장

구입문의 : 성제스님 010-7406-9788 새마을금고 9003-2212-8655-3 (예금주 : 윤순례)

2020년 신간
천만 불자(佛子)들의 필독서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대한 무수한 의문, 살아야 할 이유,
모든 해답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 존재합니다.

불자로서, 어머니로서,
청춘들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부모님께는 자녀에게 부처님 법을
알려줄 힘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부처님의 그윽한 자비를 누리시길 빕니다.

이 책 한권으로,
부처님 전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서는
기적을 체험하세요!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박윤미 지음 | 220쪽 | 14,800원

전국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최재희의 인물로 본 미얀마 ⑥ 킨메이타 수원이주민센터 대표



▶ 한줄 요약
킨메이타 대표는 한국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채 혼란한 미얀마의 현실을 마주한 미얀마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다독이고 위로해주고 있다.

한국서 미얀마가정 보듬는 자비보살



'수원이주민센터 킨메이타' 대표는 필자가 한국에서 만난 최초의 한국-미얀마 다문화 가정이다.



수원이주민센터에서 진행한 미얀마 프로그램.



킨메이타 대표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이라고 학교에서 배웠다. 하지만 대학교를 들어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나라도 '단일민족' 이 아니라 '다문화 사회' 임을 점점 느끼게 되었다. 동년배 중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지 않지만 4~5살 어린 후배들을 만날 때면, 우리 주변에 다문화 가정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주로 만났던 다문화 가정은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일본이었다. 미얀마에서는 미얀마 여성들과 결혼하는 한국 남자들이 꽤 있기 때문에 미얀마-한국의 다문화 가정을 볼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한국-미얀마 다문화 가정을 쉽게 볼 수 없었다.

미얀마 쿠데타는 정말 나쁜 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로 인해 한국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직업군의 좋은 미얀마분들을 만나게 되었다. 경기아트센터에서 '미얀마의 봄' 이라는 문화제가 열리기 전 날, 최종 연습을 하기 위해 모두가 모인 날 처음으로 수원이주민센터 킨메이타 대표를 만나게 되었다. 맑고 선한 두 눈을 가진 그와 대화를 하는 내내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다. 내가 한국에서 만난 최초의 한국-미얀마 다문화 가정이었다.

그는 수원에서 남편, 아들 두 명과 함께 오순도순 살면서 수원이주민센터 대표직을 맡고 있다. 이 센터는 이주여성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강사와 세계시민강사 파견 사업을 진행하며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 또한 한국 생활에 관해 필요한 상담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이주민들이 한국생활을 편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서로에 관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의 논문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로 '불자' 라는 사실이었다. 미얀마 국민들의 대다수가 불자이긴 하지만, 미얀마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 등 다양한 종교를 가진 미얀마 국민들도 있어서 먼저 밝히기 이전에는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다. 그의 삶의 첫 걸음도 불교에서 시작되었다. 불자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모태불자다. 아직까지 불법의 환희심 중 잊을 수 없는 일은 막내 동생의 신뿌의식을 부모님 대신 치뤄준 날이다. 부모님의 은혜를 남동생의 신뿌의식이 거행되는 날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의 불심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는 일화였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나중에 자식을 낳는 인연이 생긴다면 나도 미얀마 사람들처럼 자식들이 10살이 되는 해에 머리를 깎이고 절에 들어가 스님들과 일주일 혹은 한달 정도 함께 생활하는 신뿌의식을 거행해주고 싶다는 간절한 원이 생겼다. 타국에서 적응해 사는 것은 아무리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때때로 외로운 법이다. 그는 외롭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 한국 사찰에 찾아가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한다. 그러고 나면 마음 한켠에 찾아왔던 번민과 외로움이 정화되는 것을 느낀다. 그의 말을 듣다 보니 유학생활 중 힘들거나 외로울 때마다 찬란한 황금 빛이 감도는 쉐다곤 파고다에 가서 기도하던 나의 모습과 교차 되었다.

"선생님에게 불교는 어떤 의미인가요?"라는 질문을 하자 그는 "불교는 인생의 동반자"라고 답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비를 바탕으로 매순간마다 삶에서 평화로운 선택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 이외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오계를 최대한 잘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그의 말에 스스로의 어리석었던 생각을 반성하게 되었다. 가장 기초적이면서 근본적인 오계와 같은 것은 너무 쉽다며 한 때 불교의 심오한 교리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던 편협한 생각을 했던 이십대 초반의 과거의 내가 생각났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갈수록 '오계' 를 지키고 '자비심' 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인생에 있어 중요한 일인지 깨닫고 있다.

한국서 만난 첫 미얀마 다문화 가정
이주민 센터 대표로 다양한 활동 중
부모님 대신 동생 신뿌의식 치뤄 준
신심 깊은 불자…'마음의 평화' 강조

미얀마 문화 속 불교의 가치가 가장 잘 녹아 있는 것이 '기부문화' 라고 했다. 쿠데타가 어느덧 100일이 지난 지금 힘든 시간 속에서 미얀마 국민들이 버틸 수 있었던 부분에 국민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기부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에서 여러 시위 활동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국어로 번역한 미얀마 전래동화 책인 '마운포와 호랑이' 와 '왜 물소는 윗니가 없을까?' 의 수익금을 미얀마 현지 민주화 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의 노하우와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미얀마 쿠데타 상황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본인 스스로도 쿠데타에 대한 많은 분노와 좌절감이 있을 텐데 오랜 명상을 통해 다져온 평정심과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국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채 혼란한 미얀마의 현실을 마주한 미얀마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다독이고 위로해주고 있다. 불교의 교리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다. 하지만 이번 쿠데타를 겪으면서 '불교의 나라' 인 미얀마에서 스님들의 목소리가 예전만큼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큰 스님들의 감금이 '리더' 의 부재를 만든 것일 수도 있다. 그는 이번 일이 끝나고 나면 미얀마의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시사했다. 미얀마가 오랫동안 불교국가이긴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하고 서로의 종교 문화가 다른 점을 이전보다 더욱 잘 이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교는 자비를 기본으로 해서 평화적인 실천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 미얀마인들이 마음의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치라고 봅니다. 욕심 없고 자비를 삶에서 수행하는 생활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말이 오랫동안 가슴 속에서 울려 퍼졌다. 미얀마에서 만났던 다수의 미얀마 지인들이 했던 말들과 동일한 말이었다.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로 살면서,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을 위한 정착 지원활동을 하는 킨메이타 대표님의 행(行)에서 불법의 향을 느낄 수 있었다.

미얀마 사람들의 대다수의 삶의 나침반인 '오계' 와 '자비' 가 아름답게 사회 속에서 퍼지던 나라였지만, 소수 사람들의 삼독으로 인해 현재 미얀마의 삶은 모든 것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스스로 지은 일의 과보를 받는 '자업자득(自業自得)' 의 결과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미얀마 사태가 파사현정(破邪顯正)으로 올바른 길로 나아가길 부처님오신날인 5월을 맞아 더 열심히 기도 해야겠다. 미얀마에 다시 좋은 날이 올 때 킨메이타 대표님이 추천해주신 천불천탑의 신비가 가득한 바간에 진득하게 머무르며 명상을 하는 날을 꿈꿔본다.

〈양곤대 박사과정〉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 문제는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의 정의 : 나와 다른 음의 에너지(죽은사람 · 동물 · 식물 · 기타 모든 영적 기운)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함.
■ 빙의문제의 해결 :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음적 에너지(영가기운)를 몸으로부터 분리, 천도해 주어야 이상증세, 이상행동이 바로 잡아짐(퇴마와는 다름). 약을 먹거나 병원치료도 효과가 나타남.
■ 여러 빙의증세 및 음적 에너지(영가기운)의 여러가지 영향
① 이사후 집이나 가게 등에 머물러 있는 경우
(집에 우환 발생, 꿈자리 사나움, 가위눌림, 가족간 불화, 가게터와 사업장 여관,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 장사가 안됨, 사고나 싸움이 잦음)
② 사람에게 빙의된 경우 병원에서 이상은 없다는데 증세는 여전한 경우
가위눌림(밤마다 또는 가끔씩, 수많은 꿈에 시달림, 비몽사몽, 자고나도 몸이 무거움. 토끼(잠들었다. 깨었다를 반복), 불면증(잠못 이룸)
③ 환청(이상한 소리 들림), 환각 증세 일어남
자살충동, 과다한 음주, 폭식, 불안증세, 우울증, 대인기피증, 알수 없는 통증, 초·중·고등학생 · 대학생 이상행동 폭력적 행동, 집중력 저하, 학습능력저하
④ 장례식장, 상갓집, 국내 및 해외여행 다녀온 후 이상 증세 있는 경우
⑤ 동물영가가 들어온 경우
많이 키우고 10년넘게 장사한 경우(집안에 급병, 급사, 우환, 각종사고), 집에 키우던 개, 기타 동물 잡아먹은 경우, 뱀술 등을 먹은 후 이상증세 있는 경우
⑥ 식물영가 (거목 및 꽃나무를 베어낸 경우)가 몸에 들어온 경우
- 머리, 가슴, 팔, 다리 찢어지는 통증이 있으나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
· 신기운에 의한 신병, 무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광증 있으신 분
· 병원 다니고 여러번 굿하고 천도재 해도 효과 못보신 분 · 정신과병원 오래 다녀도 차도가 없으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천도가능함) · 상황에 따라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타종교인, 무종교인 상담도 가능

■ 환자상태를 상담해서 문제 해결 프로그램으로 진행 - 육지에 계신 분 당일천도(아침 비행기, 오후 비행기) 가능!
■ 차후 지속관리 상담해 드림 (또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빙의치유전문상담사 (전문자격 갖춤) - 전생빙의 트레이너과정 수료!
■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가, 신기운 제령 최고의 권위 실력 갖춤 - 20여년 경력, 임상 노하우 갖춤!
■ 원격치유가능 (외국에 있는 환자도 치유가능, 환자가 오지 않더라도 빙의 진단 및 해결)
◉ 오시는 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 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상담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 영가천도 전문상담원 문의전화 (064)746-0789

나이가 들어가며
염불이 점점 힘들어 지는 스님들에게
마이크와 2m 떨어져 지극히 작은 염불에도 장엄하고 은은한 소리를 만들어 신명나는 본사 견본으로 소리 비교만 한 번 해보세요! 소리비교값은 커피 ☕ 한잔!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 마이크와는 비교시 장난감수준!
형편이 안되면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소리는 배가됨!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3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8만원

시중에 없음
마이크만 구입 가능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58만원

“마음 진실하고 공경스러워야”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⑳ 경전을 대하는 마음

“또 문수사리여, 여래 멸도한 뒤 말법 시대에 이 경을 설하려면 응당 안락행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입으로 설하거나 경을 읽을 때에 남의 허물과 경전의 허물을 들어 말하지 말라. 또한 법사들을 가까이 하되 업신여기지 말며, 남의 좋고 나쁜 장단점을 말하지 말며, 성문들의 이름을 들어 그 잘못을 말하지 말며, 또 이름을 들어 그 좋은 점을 찬탄하지도 말며, 또한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와 같은 안락한 마음을 잘 닦음으로써 모든 듣는 이가 그 뜻 거스르지 않을 것이며, 어려운 질문이 있거든 소승법으로써 답하지 말고, 오직 대승법으로 해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체종지를 얻도록 하여야 하느니라.

응당히 일체중생에게 대비의 생각을 일으키고, 모든 여래에게는 자애로운 어버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며, 모든 보살에게는 큰 스승이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시방의 모든 대보살들을 항상 깊은 마음으로 공경하고 예배해야 하느니라. 일체 중생들에게 평등하게 법을 설하되 법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많게도 말고 적게도 말며, 깊이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또한 많이 설하지 않도록 해야 하느니라.

문수사리여, 이러한 보살마하살이 말세에 법이 멸하려 할 때 이 안락행을 성취하는 이는 이 법을 설할 때에 어지러움이 없으며, 좋은 도반을 얻어 함께 이 경을 독송하며, 또 법을 들으려는 대중이 생기리니, 들은 뒤에 받아 지니고 지닌 뒤에 외우며, 외운 뒤에 설하며, 설한 뒤에 능히 쓰며 또 남 시켜 쓰게 하여, 경전을 공양하여 공경, 존중, 찬탄하리라.”

‘안락행품’에 설해져 있는 위의 내용은 경전을 대하는 태도와 그 자세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다. 안락행으로 요약된 이 대목의 뜻은 〈법화경〉을 설하려 할 때 우선 마음이 진실하고 공경스러워야 한다는 것이다. 시비를 따지는 비판의 감정을 가져서도 안 되며 오로지 긍정적인 마음이 되어야 경전을 바로 설할 수 있다고 한다. 질문을 받거든 소승법으로써 답하지 말고 대승법으로 설명하라는 말이 특이하다. 〈법화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문이라고 말했듯이 소승의 사변적 이론을 탈피하기를 권한다. 대승경전은 주로 신심과 원력을 강조한다. 이타심의 수행을 권장하기 때문이다.

일체종지(一切種智)란 부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일체 법이 공한 것을 통달하여, 평등지견을 얻고 동시에 현상의 모든 차별을 사실대로 걸림 없이 아는 것을 말한다.

경전의 글자를 법신사리(法身舍利)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글자 한 자 한 자가 법신에서 나온 사리의 낱알과 같다는 말이다. 또 삼량(三量) 가운데 불언량(佛言量)이 있다. 중생이 지각하거나 체험해 알 수 없는 것을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런 줄 알고 요량하여 믿는 것을 말한다. 현량(現量)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인식하여 요량하는 것을 말한다. 소(牛)를 보고 소라 하고 연기(煙氣)를 보고 연기인 줄 아는 것이다. 비량(比量)은 미루어 아는 것을 말한다. 담장 너머 보이는 소의 뿔만 보고도 소라고 여기는 것과, 산 너머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불이 났다는 것을 짐작해 아는 것이다. 소의 몸 전체를 보지 못하고 뿔만 보고 짐작하고 불꽃은 보지 못했으나 연기를 통해 불꽃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현량과 비량은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새끼토막을 보고 순간적으로 뱀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유식(唯識)에서는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이라 한다. 이때는 현량이 사현량(似現量)이 된다. 사(似)는 사이비(似而非)로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비량도 착각이 된다. 가령 산 너머 피어오르는 것이 연기가 아니고 물안개였을 때는 불이 난 것이 아닌데 연기인 줄 알고 불이 났다고 생각해 버리는 경우다. 그래서 현량과 비량이 사(似)가 붙어 사현량(似現量) 사비량(似比量)이 되는 수가 있다.

그러나 불언량(佛言量=聖言量)은 사(似)자가 붙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옛날에는 불언량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라 하여 부처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 왔던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이타적 서원 실천하는 ‘출가 보살’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⑳ 출가 보살의 정행(淨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불교권에서는 ‘출가 보살’이라는 표현이 잘 쓰이지 않는다. 아마도 출가자는 당연히 출가 보살인 것으로 여겨 따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인도 대승불교에서 출가 보살은 대승 보살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출가자를 가리킨다. 이들은 기존의 출가계인 비구계와 비구니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들에게 적합한 대승계가 어떤 것인지 깊이 고민했을 것이다. 아울러 재가 보살과 다른 출가 보살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초기 대승경전 가운데 바람직한 출가 보살의 모습이 묘사된 것으로 〈화엄경(華嚴經)〉의 ‘정행품(淨行品)’을 꼽을 수 있다. 이품에 나오는 141가지 서원 가운데 130가지 서원은 출가 보살의 정행(淨行), 즉 출가도(出家道)라고 할 수 있다. 재가 보살의 서원보다 출가 보살의 서원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출가를 지향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는 보살이 집을 버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수행자의 하루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다.

첫 번째의 득도수계(得道受戒) 부분에서는 보살이 살던 집을 떠나서 승가람(僧伽藍)에 들어와 여러 스승에게 나아가 출가하기를 청하여 마침내 계를 받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이 부분에 삼귀예문(三歸禮文)으로 불리는 유명한 게송이 나온다.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할 때는, 마땅히 중생이 부처님의 종자[佛種]를 잇도록 위없는 뜻을 내기를 원해야 한다. 스스로 법에 귀의할 때는, 마땅히 중생이 깊이 경장(經藏)에 들어가 지혜가 바다와 같기를 원해야 한다. 스스로 승가에 귀의할 때는, 마땅히 중생이 대중을 통솔하여 일체에 걸림 없기를 원해야 한다.” 이 게송을 통해 삼귀의(三歸依)를 하는 보살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다.

두 번째의 실내작법(室內作法) 부분에서는 보살이 오전 중에 할 것으로 여겨지는 일련의 행동이 묘사되어 있다. 수행과 관련된 행동으로는 당우(堂宇)에 들어가 자리를 펴고, 몸을 바르게 해 단정하게 앉고, 결가부좌로 정(定)과 관(觀)을 닦고, 가부좌를 풀고 앉는 것 등이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동으로는 옷을 입고, 양치질하고, 대소변을 보고, 얼굴과 손을 씻는 것 등이다.

세 번째의 출문(出門) 부분에서는 보살이 사찰에서 나와 자연환경을 접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네 번째의 행걸(行乞)과 청식(請食) 부분에서는 보살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걸식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다섯 번째의 경행(經行)과 순례(巡禮) 부분에서는 보살이 경행하고 부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여섯 번째의 취침작법(就寢作法) 부분에서는 보살이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언뜻 보기에 출가 보살의 모습은 기존의 출가자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일본의 불교학자인 스치하시 슈코(土橋秀高)가 언급했듯이, 승가(僧伽)의 유지에 필요한 법규(法規)와 작법(作法)을 지키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비구와 사미의 위의법(威儀法)이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오히려 이전에 없었던 항목이 추가된 행의(行儀)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출가자와 달리 출가 보살에게는 이타(利他)의 행원(行願)을 바탕으로 한 위의를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이전의 출가계에서 육체적 · 언어적 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해 출가자로서의 위의를 갖추게 한 것과 다르다. 아울러 130가지 서원은 출가 보살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예시로 볼 수 있다. 이런 예시가 일상화된다면 출가 보살은 언제 어디서나 이타적인 서원을 세워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⑳ 금강좌(金剛座)

성스러운 풀 쿠샤풀

〈Kūśa〉

완전한 깨달음을 위해 명상에 들기 전, 석가모니가 농부로부터 한 다발의 풀을 받았다는 것을 불자들은 기억할 것이다. 석가모니는 그 풀을 받아 보리수 밑에 깔고 동쪽을 향해 앉아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그 풀을 보시한 사람은 소티야(Sottiya)였다. 그는 아마도 풀을 잘라 팔던 농부였거나, 그 풀을 필요로 했던 바라문으로 보인다. 그의 이름은 그가 단순한 농사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는 이름대로 ‘(베다) 경전을 공부한 사람’ 이었을 것이다. 석가모니는 그 한 단의 풀을 받아 보리수 밑에 깔고 몸을 꼿꼿이 세워 가부좌를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자리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결심했다. 깨달음 직전에 앉았던 그 결의에 찬 자리를 우리는 후에 금강좌(金剛座)라고 부른다.

이 장면은 경전뿐만 아니라 조각을 통해서 여러 번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부처님이 풀을 받아 자리를 만드는 장면을 왜 고대 불교인들이 여러 번 반복해 말하고 있는가는 별로 의문을 갖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앉을 자리가 딱딱한 맨 땅이라 부드러운 풀을 깔아 편안한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단순한 일이었다면 굳이 그 풀을 보시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며, 고대 불교인들도 이 장면을 경전에 남기거나 돌에 새겨 기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장면이 반복되는 이유는 고대 힌두교나 불교의 전통 속에서 풀을 받아 자리를 만드는 일이 의미 있고 상징적인 행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초기 힌두교에서 종교적인 수행을 위해서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리를 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사용되는 풀이 꾸샤(poa cynosuroides)풀이다. 길상초(吉祥草)라고 부를 수 있는 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풀이 쿠샤(Kūśa)풀이다. 쿠샤는 다르바(Darbha)라고도 부르는데 인도의 여러 종교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가장 성스러운 풀 가운데 하나다. 한문으로는 음사하여 구시(矩尸)나 구서(俱舒) 등으로 옮겼고, 길상초나 묘초(妙草)로 번역하기도 한다. 이 풀을 신성시 했던 고대 인도의 전통은 베다문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 힌두교에서 사제들은 이 풀 위에 앉아 제사를 지내거나 신에게 바치는 공양물을 이 풀 위에 올려놓기도 했다. 고행자들은 이 풀로 엮은 돗자리 위에 앉아 명상에 들기도 하는데, 의식을 집중할 때 외부의 산란한 기운을 차단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명상을 위한 이상적인 자리로 생각했던 것이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 풀이 갖는 중요한 기능은 ‘순수함’과 ‘정화’의 기능이었다. 물과 풀의 본질 그 자체라고 부를 정도로 볼만큼 깨끗한 풀로 인식했던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현재 인도와 네팔 등지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요가수행자들은 이 풀로 만든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 북인도와 네팔 테라이 지역에서 많이 자생하는데, 부처님의 열반지였던 쿠시나가르라는 지명이 여기서 유래했다는 견해도 있다. ‘쿠샤풀(쿠시)이 많이 자라는 도시(나가르)’라는 의미로 말이다.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그럴듯한 설명이다. 이 풀로 만든 돗자리는 일반 볏짚으로 만든 것보다 비싼 가격에 팔리며, 이 풀의 종교적 가치를 아는 서양의 수행자들을 위해 현재 인도와 네팔에서는 이 풀로 짠 작은 돗자리를 수출하고 있을 정도다.

이렇듯 현재까지도 이 풀의 종교적 유용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는 이 풀이 갖는 특성에서 기인할 것이다. 이 풀은 번식이 빠를 뿐만 아니라 땅 속 깊이 단단히 뿌리를 내려 쉽게 뽑히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고대 인도 문헌에서 이 풀은 크샤트리야의 단호한 결단력과 강한 의지를 의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풀의 성분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약용으로도 사용했다. 이러한 약성 때문에 이 풀은 오래전부터 정신적인 견고함과 집중이 요구될 때 필요한 풀로 여겨졌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42호 | 13 | 전면광고

진실한 말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허물과 걱정을 길이 여의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소행찬》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법당,신당,무료철거

퇴송의식
스님 항시 대기
모시던 부처님 어려운 스님들께 이운시켜 드립니다
세계불교 지장종 종정 운산 합장
(폐기물 처리비, 소각비만 받습니다)
010-2395-3333

신경성질환 원인분석 치유

❖ 우울증이 원인인 실어증
시력상실 모든 신경성
철학과 한의학의 심리 치유
❖ 부부문제와 의부증 의처증
❖ 사찰에서 꼭 필요한 상담 교육
010-4078-7810 慧泉

기도스님 모십니다

• • •
시내선원
(학인, 수좌스님 환영)
• • •
(054)281-0108
010-2811-0118

★검 색★

GP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 • •
010-2078-9595

• • •
공양주 모십니다.
숙식제공
• • •
010-5049-1533

• • •
공양주 모십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암
• • •
010-3525-9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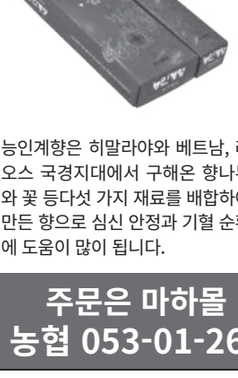
易(역) 수강생 모집

• 왕초보반 : 명리 · 육효 · 영가 찾는 법
YouTube 백암TV 구독 누른 후 시청
백암역리원 010-9150-2284
오시는 곳 : 2, 4호선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향(香) 특판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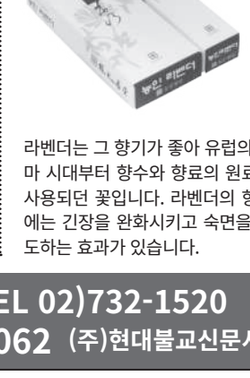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특수 기도

스님에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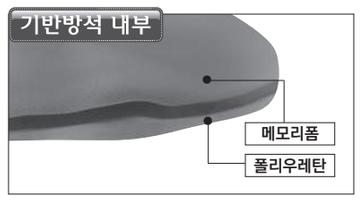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42호 | 14 | 전면광고

국자로 바다의 물을 비우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비록 나고 죽고 나고 죽어 억만 겁이 걸리더라도 청정한 불국토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을 믿는 자의 서원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유마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시
◎대지 : 500평
◎건평 : 60평,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매가 : 23억

◎위치 : 경북
◎대지 : 150평
◎건평 : 80평
◎시내, 생활편리
◎매가 : 7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지 : 335평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납골당 5000개 가능
●가액 : 12억(가격절충)

010-5421-1536

전통 암자 안내

●위치 : 충북 괴산
●종교용지 등기 912평(약 1천평)
●뒤는 산, 앞은 면사무소, 학교, 시장
●대웅전, 지장전, 삼성각, 요사채, 목조기와 단청, 공원같이 아름다운 곳
●은행 1억5천 안고 2억5천만 합 4억
●신도있고 스님이 연로하시어 양도함

010-3535-7906

사 찰 안 내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법당 70평 외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가격절충)

010-9015-4040
010-2077-7820

전원주택&토굴 안내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포 교 원 안 내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역 (2,4호선)
●먹자골목, 교통최요지
●2층 평수 30평, 시설 완비, 즉시 강좌, 법회 가능
●보증금 2천만원, 월 125만원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0-9150-2284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진주시내
●대지:100평 ●건물:법당25평.요사채 30평(방3개.큰다락방.다용도실.공양간.화장실2개) ●해수 관세음보살 입불상(7m) ●부처님 진신사리3과(기증) ●가액:2억8천만원(대출6천만원 포함)절충가능 ●전.월세가능
●시내지만 조용하고 즉시 법회가능

010-2678-3499

전원주택 안내

(암자도 가능)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연상1길 52-1
●대지 191평, 전원주택 30평
●황토방 5평, 창고 10평
●태양광, 마당주차 5대
●가액 2억 7천만원

010-3882-2897

사찰(급)안내

●위치 : 전주시내 정 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시 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대지 : 400평(국유지 1만평 사용) ●법당(요사채 최신형 입식), 극락전(목조기와 신축) ●가액 : 2억원(대출금 3억5천 별도, 승계안고) ●조건 : 양도시 모든 석불 포함(석불 조성 1억5천)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울창, 편백나무 5천그루 ●1억 계약시 등기부 넘겨드림, 잔금 1억은 분할납부 가능함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공사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

010-9647-0723

지리산 명당터 안내

●위치 :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소재
●지리산 웅석봉 아래 백두대간 정혈 큰터
●청계호수를 바라보는 정남향 절경
●대지 종교부지 전 임야 총 16,000평
●택지개발 3000평 분할매도 가능
●건물 36평 2동 8평 2동
●답사 상담 협의 후 가격결정

010-4752-0459

경주 남산 최고의 명당사찰

●위치 : 경주 남산 최고의 명당사찰
●총부지 약 2000평
●법당, 요사채, 황토방, 정자, 토굴방
●주변전체가 소나무 숲임
●경주IC에서 10분거리
●가액은 현장 답사후 결정

010-4536-1456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산청군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주건물: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청정토굴 안내

●위치 : 경북 영천시 화남면 온천리614
●대지 85평
●법당 16평, 요사채 12평
●가액 : 7천만원
●오염되지않은 청정도량
●개인사정상 양도함

010-4911-4570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사천시 곤양면 와티길 212, 총평수 대략500평
●바다가보이고 넓은잔디밭에 조경 잘되어있음, 대웅전, 요사채2층
●사천읍15분거리 축동IC 5분거리
●매매가 4억, 대출 1억가능
●월.전세 문의불문 꼭사실분만 전화 (사찰구입시 몸만오시면됨)

010-5430-4672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82
●대지 230 평
●법당 20평, 산신각, 공양간, 찻방, 아담한 산밑자락
●가액 : 3억(대출5천만원) 절충가능

010-9389-7457

5년 기반 포교원 안내

●위치 : 대전 복합터미널 근처 대전역 인접
●제반시설 - 법당, 주방, 상담실, 방×3, 60평
●2층건물, 옥상 60평 사용
●보증금 1000만, 월세 50만원
●시설일체 인수 가능하신 분

010-3452-1123

작은법당 안내

●위치 : 경기 시흥 지역
●법회 보고 상담하기 제일 좋은 암자
●빌라 반지하 몽땅 8천7백만원
●즉시 법회 가능

031-433-8130

사 찰 안 내

●위치 : 충남 금산 추부면 ●종교부지 280평. 임야 50평. 총 330평 ●법당 23평(철재경량골) ●삼성각 : 30년된 목조기와 7평. 단청 ●요사채 : 철재스레트 30평 ●방5개. 거실. 주방. 화장실(실내1, 실외1) ●사찰 뒤는 산, 앞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망좋은 곳
●가액 : 2억(융자 6천만원)

010-3875-6305

포 교 원 안 내

●위치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흥천이포IC 5Km (이천 여주 광주 시내 25분거리)
●대지299평, 건물 2채 주차시설, 목조 한옥집(24평), 법당 사무실 방 주방 화장실, 요사채(18평), 방2개 화장실2 주방
●가액 5억5천만원(절충)

010-6355-6468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림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사찰, 또는 암자에서 재 건축및 재 개발에 포함되어 보상관련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스님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종단 연합회 ●사단법인 한국 불교 조계종
종괄사업 본부장 현광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909호
02-2198-5022~4 , 010-6209-5099
※ 수 많은 스팸 전화로 인해 전화를 잘 받지 않을 수 있으니 문자로 상담 문의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빠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마찍 롭돈의 4가지 어려운 수행

1. 무서운 곳에 가라. 두려움을 직면해서 자유로워집니다. 비판과 비난, 통증과 병, 불명예와 빈곤, 등을 두려워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실상 즉 공성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에고의 원인이기 때문에 직면하면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도망가고 피하는 것은 너무 쉽고 많이 익숙해요. 수행은 용기가 필요해요. 무서운 곳에 해탈이 있어요.
2. 집착하는 것을 주라. 집착하는 사람은 놓아줄 수 있어야 하고 집착하는 물건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 베푸는 마음은 집착이 없어요.
3. 부끄러운 것을 밝혀라. 잘 못한 것과 부끄러운 일들을 떳떳하게 밝히면 정화가 됩니다. 숨길수록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약하게 하고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4. 미운 사람을 도와줘라.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정말 싫고 어려워요. 하지만 삶의 가장 큰 장애인 미움과 원망을 닦는 데는 더 탁월한 방법이 없어요. 엄청 어렵지만 미운 사람의 공덕을 인정하는 것과 하기 싫지만 도와주는 것이 아집을 약하게 하고 자비심을 드러나게 합니다. 어려움을 피하지 마세요. 여기에 진정한 수행이 있어요. 마음의 힘은 어려움으로 길러집니다. 용기를 가지고 해본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공덕은 무량합니다.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⑩ 보이차 '육산합일'

윈난성 여섯개 차산 합일한 보이차 명작

청나라 황제들은 차를 몹시 좋아한 애차인(愛茶人)이었습니다. 보이차의 시작은 옹정제가 열었습니다. 옹정제는 스트레스가 많은 황제였습니다. 황위에 오르기까지 수십 명의 왕자들과 무한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차를 마시지 않았다면 스트레스를 풀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옹정제는 윈난 시솽반나를 정벌하고 보이부를 설치했습니다. 보이차를 공품으로 바치도록 지정하고 차와 말을 바꾸던 차마호시(車馬互市) 대신 차세금을 징수하고 보이차를 거래하게 하였습니다. 보이차의 이름도 보이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보이차의 황금시대는 건륭제가 열었습니다. '군주는 하루라도 차가 없어서는 안 된다.(君不可一日無茶)' 고 할 만큼 차 마니아였던 건륭은 청나라 황제 중 88세로 장수했고, 60년이나 재위했으며 차와 관련해서 수백 편의 시와 그림을 남겼습니다. 건륭제는 둥글고 단단한 보이차가 보름달처럼 아름답고, 황금빛이 도는 탕색에 차향이 풍부하며, 차기운이 묵직하고 품위가 있다고 찬탄했습니다.

지금도 자금성 고궁박물관에는 청나라 때에 공차로 바쳤던 윈난 보이차 공품이 남아있습니다. 1960년대에 자금성을 보수하다가 황실의 차 창고에서 명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의 공차는 찻잎이 모두 먼지가 되어 부패해 있었는데, 오직 보이차만이 단단하게 압병된 튼실한 자태 그대로 모습을 드러내어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백년의 세월을 이겨내는 힘, 강한 기운과 품위를 지닌 보이차는 차산환경과 나무 수령이 중요합니다. 보이차는 나무 높이만큼 뿌리가 깊어 홍토의 기운을 품고, 천연원시림 고산지대의 태양에너지와 산기운을 듬뿍 머금고 자랍니다. 윈난성 시솽반나에는 중앙을 가로지르며 란창강이 길게 흐릅니다. 란창강의 동쪽 맹랍지역에 고육대차산이 분포해 있고, 서쪽 맹해지역에 여러 유명 차산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고육대차산은 청나라 완복의 〈보이차기(普이茶記)〉에 기록이 있습니다. "보이차는 천하에 두루 이름이 알려졌는데 다른 어떤 차보다 맛이 깊어서 연경에서는 특별히 소중하게 여겼다. 유락, 혁등, 의방, 망지, 만전, 만살 등에서 생산된다."고 하였습니다. 보이차가 공차(貢茶)가 되어 의방차산에 관부가 설치되고 보이차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황실에서 파견한 관료의 부정부패가 심해지자 청나라 후기에 소수민족 차농들이 봉기하여 의방차산의 관부가 불타고 차산이 훼손되었습니다. 청 말에 이무(易武)지역으로 관부가 옮겨진 후 민국시대 다시 한 번 보이차가 흥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차창과 차상들이 이무를 중심으로 보이차를 거래하였기에 고육대차산에서 지명도가 낮은 만살을 제하고 이무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이무정산(易武正山)' 이란 호칭도 생겼습니다. 정산(正山)은 정통의 산, 원조가 되는 산이란 뜻입니다. 이무지역은 보이공차의 중심지이며 차마고도의 출발지입니다. 말굽에 밟혀 반들반들 닳아지고 귀퉁이가 떨어져나간 돌길을 걷다보면 마방들의 땀과 눈물과 환희가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골동보이차로 억대를 호가한다는 호급(號級) 보이차는 대체로 이무지역에서 만들어진 차입니다.



윈난성 여섯 개 차산의 험난한 길을 돌아 300년, 500년 수령의 고차수 봄 첫물 찻잎만을 100% 병배하여 만든 보이차 '육산합일(六山合一)'.

6개 고차수 봄 첫물 찻잎으로 병배
"병배, 고수만 가능한 어려운 작업"
차기운조화 이뤄 맛·향·후운 풍부

현재 보이차의 중심은 란창강 서쪽 맹해 지역입니다. 포랑, 남나, 맹송, 파사, 파달 등 유명한 차산이 산재합니다. 워낙 여러 차산에 수백 년 된 고차수(古茶樹) 다원이 분포해 있어서 6대 차산이라고도 하고 8대 차산, 10대 차산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중 특히 포랑산은 그 유명한 라오반장 보이차가 생산되는 명산입니다. 포랑산 고차수 보이차는 차기운이 강하고 꽉 찬 맛에 활력이 넘치며 후운이 오래 남습니다. 남나산은 교목형 대엽종 차나무의 원산지라고 할 만큼 차 재배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고차수 다원 면적이 넓은 유명 차산입니다. 남나산 고차수 보이차는 차기운이 부드럽고 은은한 난향과 밀향이 감미롭고 매끄럽습니다. 맹송산은 맹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차산으로 유명합니다. 맹송산 고차수 보이차는 향과 맛과 기운이 조화롭고 해발이 높은 까닭에 상쾌하고 시원한 구감이 특징입니다. 파달산은 맹해 남쪽 끝자락에 위치합니다. 본래 중국 국가공인 최초의 1800년이 넘은 차왕수(茶王樹)가 있어서 차인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며 고사해서 지금은 고사목을 진승차창 진열실에 옮겨놓았습니다.

십여 년 전 중국에서 가장 오래 사귄 중국인 친구가 차의 스승으로 모시는 분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여 베이징 차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분이 만든 차를 시음하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윈난성 여섯 개 차산의 험난한 길을 돌아 300년, 500년 수령의 고차수 봄 첫물 찻잎만을 100% 병배하여 '육산합일(六山合一)' 이라는 보이차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병배란 다양한 찻잎을 섞는다는 뜻으로 블렌딩 푸얼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병배는 무조건 여러 차산의 찻잎을 혼합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섞는 것이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미각과 후각이 발달하고 후천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차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매우 섬세하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육대차산에서 나는 차는 기질과 맛이 차산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병배가 잘 이루어지면 차기운의 고저장단이 조화를 이루어 맛과 향과 후운이 풍부합니다. 1포 2포 3포 차를 우릴 때마다 폭포처럼 활력이 넘치고 상쾌하고 우아하고 다채롭습니다.

육산합일은 보이차의 명작입니다. 육산합일은 10년쯤 숙성해야 육대차산의 차 맛이 조화를 이루어 비로소 제 맛을 내기 시작하는데 육산합일을 소장하게 된 지 올해로 딱 십 년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과 꼭 한번 품차(品茶)해 보고 싶습니다. 〈잇다it茶 대표〉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02-2004-8200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검색창에 현대불교신문 을 쳐보세요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육각초 연꽃칠성촛대
침향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연꽃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AIR BLASTING BY WOOD POWDER
에어대패 鉋
목분(木粉)을 이용한 신기술 건식공법!
* 목구조 건축물 복원의 신기술 "우드(목분)공법"은 원형복원과 목재의 수명연장을 목적으로 특화개발된 신공법입니다
* 문화재, 사찰, 단청, 한옥, 목구조물, 조경시설물, 특수건축물, 금속이나 비금속, 수지, 석재 등의 소재에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천년옻칠 泰
천연 옻나무에서 추출한 친환경 인증 천년옻칠
* 해충으로 부터 보호합니다 (방충, 방의, 방부)
* 목재의 크랙 및 변색방지 (방수성/방오성)
* 목재의 고유한색상을 더욱아름답게 유지합니다.
* 유지관리가 용이합니다 (통기성)
동화특수산업(주)
031-451-6232 / 010-3747-2111

마음책 다시 읽기 부처님의 감정수업 굿바이, 분노

▶ 한줄 요약
분노가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

마음감옥 해방 방편은 '용서'

분노가 불러오는 불이익

〈입보살행론〉에서는 용서하려면 먼저 분노가 불러오는 불이익에 대해 깊게 사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충분한 동기가 생기지 않으면 분노를 다스리려는 노력과 배움은 쉽게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분노에 사로잡혀 실수한 경험이 있고, 이 실수가 만들어낸 고통을 압니다. 반성해도 잠깐일 뿐 시간이 지나면 불이익도, 분노를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도 모두 망각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우리는 미리 우물을 파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목마른 후에 우물을 파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것처럼 화로 입은 손실을 후회하며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음속에 분노의 화살이 꽂혀 있으면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되고
기쁨이나 행복을 얻지 못하며
불안하여 잠도 자지 못한다네. [6:3]

논에서는 분노의 첫 번째 불이익으로 불안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 계속 곱씹는 습관이 있는데, 이 과정은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도록 합니다. 분노가 만드는 마음의 지옥에 갇혀 버린 것이지요. 용서는 이런 지옥 같은 마음의 감옥에서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겠다는 허락입니다.

용서는 결코 원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수행일 뿐입니다. 어차피 상대방은 용서를 받든, 받지 못하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소화하지 못한 분노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나쁜 짓을 하면 두 다리를 뻗고 자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작금의 현실을 살펴보면 가해자는 그 잘못을 금방 잊고 일상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또한 밤에 잠도 잘 자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자신을 분노의 감옥에 가둔 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밤에 두 다리를 뻗고 자지 못합니다. 피해를 본 것도 모자라 자기 자신을 점점 더 고통의 감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큰 손해입니다.

그러니 부디 용서하세요. 용서하면 자유로워지고, 용서하지 못하면 분노 지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현실의 기쁨을 즐기지 못하는 것보다는 어렵지만 용서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주인이 자기들에게 재물과 명예로 보상해 주더라도
화를 잘 내면 미운 생각이 생겨
그런 주인에게도 대들며 죽이려고 한다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친구들조차 싫어하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려고 무엇을 주어도
신뢰하지 않나니
화 잘 내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네. [6:4-6:5]

분노가 불러오는 두 번째 불이익은 주변 사람들과 원한의 관계를 맺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지만, 원한은 오랫동안 간직합니다. 불안정한 마음의 시한폭탄이 터질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주변의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 합리적 이유를 마음에 품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분노가 만들어내는 상황을 깊게 생각해보면 그 마음이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품은 분노가 터지면 극적인 상황이 일어납니다. 분노는 피해자였던 우리를 가해자로 변신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주변의 사랑하는 이를 피해자로 이 비극에 참여시키며, 그들의 마음에 우리를 괴롭혔던 시한폭탄을 선물하게 됩니다. 옛 예능프로그램인 가족오락관의 한 장면을

스스로의 불이익 '분노심'
불안 · 관계악화 · 고통 등
또 다른 심적피해 불러와

연상시키는 이 희극적 비극은 매우 슬픕니다. 점점 더 넓게 세상을 피해자로 물들이며 분노에 중독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적을 선보이지만, 분노는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바이러스입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점점 더 자신의 마음에 분노를 품게 하는 이들을 과연 누가 좋아할까요?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지옥의 간수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라는 망상에서 벗어나 분노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이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점점 더 억울하게 만들어 분노의 감옥으로 깊게 밀어 넣는다면 지옥의 간수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논의 이 구절은 일차적으로 분노가 관계를 망치는 불이익을 보여주지만 이런 질문을 하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로부터의 자유를 선물해야 할까요? 아니면 분노의 감옥을 선물해야 할까요?"

논에 직접 언급되지 않는 분노의 세 번째 불이익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사랑



하는 가족과 친구, 동료들을 계속해서 피해자로 재생산시킵니다. 내가 그들의 가해자로서 미움받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이 분노의 감옥에 갇혀 잠을 자지 못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줄어든다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 아닐까요? 분노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또다시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분노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숙주가 되어 나와 같은 불이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첫째, 내면적으로 불안의 감옥에 갇힙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과 원한의 관계를 맺도록 만듭니다. 셋째, 외부적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그들을 피해자로 만듭니다. 분노의 피해자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감옥을 강화하고 다시 분노 바이러스를 전달하므로 인류는 지금껏 분노에 휘둘린 것입니다.

이 비극적 질병은 오직 용서를 통해서만 치료됩니다. 가해자의 죄를 사하는 그런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분노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이 용서 치료제를 복용할 때 분노라는 질병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정당한 분노는 없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행복과 사랑하는 이의 삶을 지키고 싶은 이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분노를 용납하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집착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는 상대를 가리지 않는 바이러스이기에 이 정당한 분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행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와 그들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그 허물을 소화하고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논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부분의 행복이 이 분노를 다스림으로써 얻어진다고 선언합니다.

화라는 적은 이 외에도 온갖 과실과 고통을 가져오나니
만약 부지런히 노력하여 분노를 가라앉힌다면
그는 금생에서도 내생에서도 행복하게 된다네. [6:6]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세 가지 길로 비유합니다. 그것은 고통이 난무하는 파멸의 길, 쾌락이 함께 하는 천상의 길,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해탈의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비율은 안타깝게도 3:3:3이 아닙니다. 피라미드 형태의 비율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은 파멸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파멸의 길은 탐진치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생겨나는 악처입니다. 그리고 그 악처에 빠지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분노입니다. 갖가지 부딪힘과 해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파멸은 오히려 당연해 보입니다. 파멸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남은 생애가 지옥과 같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선악과를 뱉어내고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은 분노를 항복 받는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용서를 통해 분노를 치료하면 자기 자신과 타인을 가두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멸의 길에서 천상의 길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논에서는 분노의 불이익을 내면적인 고통과 외부적 관계의 파괴로 언급했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파멸은 대부분 분노를 원인으로 합니다. 전쟁, 범죄, 반칙, 경미한 다툼까지 모두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틱낫한 스님은 저서 〈화〉를 통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분노가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

세상에 정당한 분노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당하다는 착각으로 분노하여 자신과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무시이래, 분노가 인류를 꼭두각시처럼 지배할 수 있었던 기만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이 분노에 대한 정당성입니다. 아직은 책의 서두이기에 정당한 분노를 부정하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양한 소재로 책과의 대화를 반복하면 분명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분노의 기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고통의 감옥에서 구하고 싶다면 부디 분노를 항복 받으세요. 이를 악물고 치열하게 용서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분노가 주장하는 정당함에 속아 자기 자신을 파멸의 감옥에 가두지 마세요. 이 분노만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생과 내생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 : 원빈 스님
〈이층버스 펴냄〉

국내최초 · 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공장에서 직접 제작 | 지상에서 단청 작업 | 현장 조립 설치



원적산 법명사 스틸 일주문 완공 사진과 작업 현장

스틸 고건축의 장점

1) 용접을 하지 않는다. (용접의 단점 : 장마철에 습기로 인한 녹 발생)
2) 스틸은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방음과 결로에 대한 단열)
3) 스틸은 지진과 화재에 강하다.
4) 11포, 9포까지 표현 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벤처기업 인증)
5) 타 자재에 비해 공사비가 40% 저렴, 공기단축 (23년 축적된 기술력)
6) 좀 더 세련되고 화려하며 웅장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국내 최초 대절장 ◉ ◉ 산신각 2m×4m, 3m×4m 주문제작 ◉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상담문의 010-5023-5050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행 스님

죽는 놈이 글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러겠습니까!

우리는 일거삼득으로서, 예전에 무(無)의 법, 유(有)의 법 이것을 따로따로 배우면서 나중에 무루와 유루를 한데 합쳐서 법화경으로 설했던 부처님의 그 뜻을 가만히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유의 법과 마음의 무의 법 그걸 합쳐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생활이 어떠한 것인가? 그 생활 자체가 바로 법화경이라, 응? 그러니 이거를 공간을 두고, 이게 마디는 있으나 속에 통하는 것은, 각각 이게 막아져 있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통해져 있으면서 거죽으로 이름만 마디가 세 매듭이 있는 거나 똑같은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심에 들게 한다면" 하는 요것이 마디만 있다 뿐이지 한데 통해서 한 일 자로 본다면 그냥 일심이야, 일심. 모든 것이, 삼계의 뜻이 일심에 들었다 이 소리야. (중략)

그러면 물도 우리가 약물이다 한다면 맹물과 어떠한 물건과, 만약에 삼과 대추를 가공해서 졸인다면 이건 삼물이 돼 버려, 응?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물도 곱게 물대로만 있는 게 아니야. 만약에 여기서 가공만 한다면 이것이 삼물이 될 수도 있고 가공을 안 하면 그냥 맹물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맹물을, 즉 에너지가 있게끔 에너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라. 이것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합해서 내가 활용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거지. 그렇게 활용하면서도 자기가 침착하게 지켜보는, 자기가 해 놓고 자기를 침착하게 보는 그러한 물러서지 않는 믿음, 그거를 갖는다면 우리는 참 빠르게 공부할 수 있다. 빠르게 나를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함으로써 직접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자라야 하지마는 이것은 발하나 떼어 놓으면서 벌써 내가 이 포착을 했으니까 아주 용이 됐으면 물 얻기가 십중팔구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능이 발달이 되면 결국은 지능으로 인해서 물리가 터지고, 물리로 인해서 지혜로운 그 일체 만법을 그냥 활용할 수 있다. 이 지혜로운 것은 내 폭이 넓고 그 마음의 지혜가 무기가 돼서 그대로 씀씀이를 쓰는 것이니 찰나찰나 닥치는 거를 마다 않고, 가는 거 잡지 않고 이러면서 내가 유유히 써 나가는 거, 그대로. 그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여여함이라고 그러고 걸림이 없다고 그러고, 자유인이라고 그러고 부처라 그러고 보살이라고 그러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역대 조사의 그 마음도 역대 부처의, 사대 성인들의 마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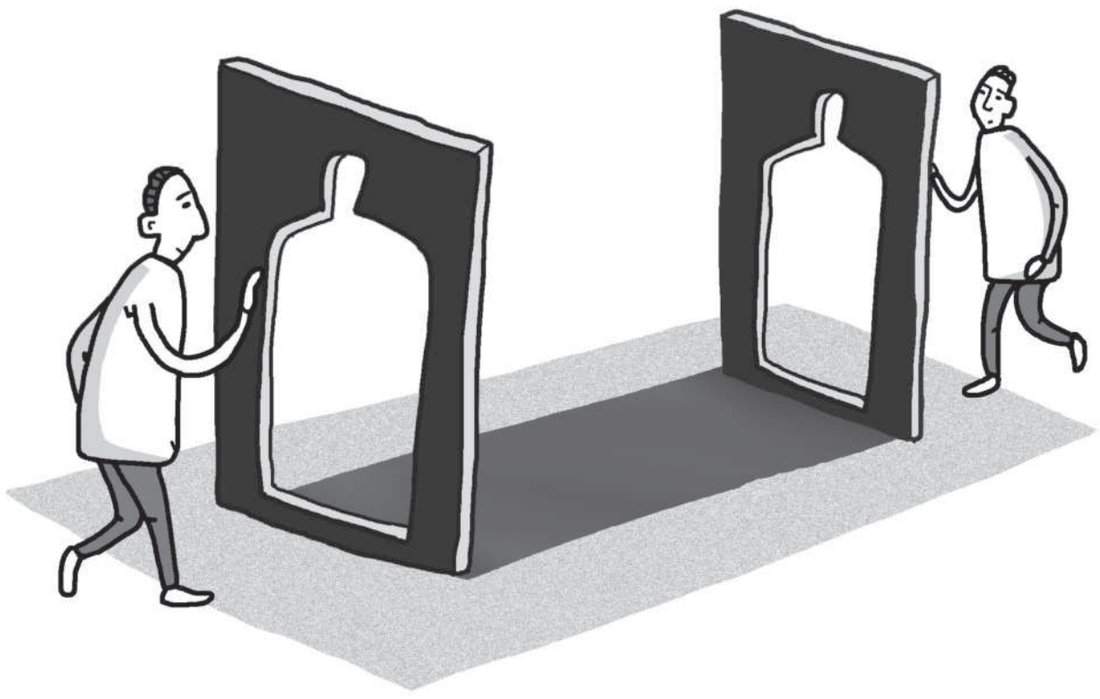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모든 것이 그 차원에 따라서 차원이 낮고 높고 이것뿐이지 생명은 다 똑같은 거라. 생명은 다 똑같은데 이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차원이 낮은 거라. 낮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는 거지. 생명은 누구나가 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불성이 하다못해 개에게도 있다 하는 거는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얘기지.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품으로 인해서 육신이 움죽거리고 말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을 요렇게 놓고서 우리가 이 안팎이 없는 보당이 여기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보당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깥에서 오관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여기서 안으로 굴리고, 안에서 바깥으로 내놓을 때는 안의 보당이 눌러지는 거야, 자동적으로, 그건. 그렇게 된다면 이 줄이 벌써 인간의 몸에도 척추에 있는 이쪽으로나 심장 이쪽, 오장육부 이쪽으로는 이 세포가 둥글게, 즉 말하자면 고구마같이 그렇게 된다고나 할까? 그러한 모형으로다가 이것이 법망이 쳐져 있지마는 그런 게 아니라면 딴 데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어떠한 그것을 막지 못해요. 그것이 법망이라, 우리한테도.

그러면 다른 세포에 있는 건 엑스로써 삼각형을 이루면서 이것이 세포가 나간 거거든. 그것은 왜 그런가? 모든 면에 있어서 영계라든가 또는 무위에서 안 보이는 문제들, 유전성이나 또는 인과응보라는 거나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세포라. 여기는 울타리나 똑같아. 그런데 울타리는 그냥 부수면 부서질 텐데 울타리 아닌 울타리라. 즉 말하자면 무의 통신기를 여기에다가 다 접근시켜 놓고 전자력도 여기에 다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마는 다 막고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에 수많은 생명들이, 보이지 않는 생명들이 많아도 그걸 제재하고 나가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이 도리를 모른다면 딴 데서 어떠한 영계가 들어오든 딴 데서 깨친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한번 때려도 그걸 막지를 못하는 거야.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 빈집이 돼서.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도대체 이거는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은 본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 누가 새삼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안팎이 뚫린 이 빗장은 양면이 다 빗장이 있는 거야, 고리가 있듯이. 그런데 맞뚫렸어, 이게. 그런데 이게 둘이 아닌데 우리가 안에서 열려니 이쪽에도 있어야 하고, 바깥에서 열려니 이쪽에도 있어야 하겠기 때문에 이거는 한쪽은 색이요, 한쪽은 무루의 나, 내놓을 게 없는 '참나' 라. 그렇다면 '참나' 로부터 '가나[假我]' 로다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내보내고 또 '가나' 가 안으로 '참나' 에게 들이고 하는 것을 항상 반복한다면 거기에서 진짜 나오는 거라.

그래서 무루에서 유루를 가르치고 유루에서 무루를, 즉 말하자면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섬기면서 거기서 스승으로 삼고 배우는 거라, 응? 왜 스승으로 삼아야 하느냐 하면 자기의 안에 있는 참자기는 수없는 억겁을 통해서 자기를 이끌어 왔다 이거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참자기이기 때문에 수많은 참자기와는 항상 한자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줄이, 요것을 자세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건 내가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벽을 치면 봇장이 울려야 해. 여기에는 수많은 법 줄이, 이 무전통신 줄이 이렇게 있다 이거야. 무전통신 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전자력과 무전통신 줄과 천안 줄과 천이 줄과 타심 줄 또는 숙명 줄, 신족 줄 이것이 천판 동시에, 동시에 이렇게 있다 이거야. 뭐를 하나 하려도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해서 내가 이게 가망이 있다 할 때 책정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거든. 여러분 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에 눈 나가는 데 귀도 나가고 귀 나가는 데 생각도 나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오관을 통해서 이 한 모습에 전자력이나 통신력이나 이런 것이 여기에, 또 영사기나 이런 것이 여기 포함해서 한 팀, 팀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책정기다, '내가 정한다' 이러는 거는, 즉 말하자면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누진으로 이렇게 연결됐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관을 굴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다섯, 다섯, 다섯 이렇게 있지마는 책정기에서 부리는, 다섯 개에 종합된 줄은, 왜, 요새 전깃줄 속에 여러 가지 넣고 이렇게 한데 합치지? 그거와 똑같아, 응?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만이 이게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 이 많은, 다섯 개씩 줄을 넣은 것도 있고 일곱 개씩 줄을 넣은 것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에서 보당이 다 거기에 통하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동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만약에 저 달나라로 통신을 했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일도 없는데 괜히 통신을 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무뜩 어떠한 생각이 났을 때 그건 상대가 되는 거야. 그럴 때에 이것은 '아하, 거기?' 하면 이 다섯 개의 줄, 하나의 줄 속에 다섯 개씩 여섯 개씩 일곱 개씩, 이 줄이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거라, 응? 포함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 달을 위에서 동시에 보는 거야. 동시에 듣고 동시에 알고, 동시에 보고 동시에 책정을 하고, 거기가 전자에는 어떻고 지금은 어떻고 이런 것을 동시에 보는 거. 다섯 가지 문제를, 동시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나가는 생활 속에서 항상 안으로 들이고 내고 하는, 안팎에 있는 이 보당만 가지고 씀씀이를 써 본다면, 자기가 하고 지켜보고 그렇게 씀씀이를 쓴다면 이게 유년 가다 보면 이게 참선이요, 나 찾는 길이요, 나를 발견하는 아주 쉬운 길이요, 또 그 대신에 내가 몸을 이끌어 가는 데도 아, 세 치만 알아도 내 몸은 건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데 이거 건강하게 못 끌고 가? 그래서 나를 갖다가 '아이 참, 귀찮다. 좀 편안하게 조용히 있어야겠다.'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몸이 어르르르르 하면서 아주 딱 그냥 노그라지는 그런 편안한…, 왜, 마취하지? 그러면 편안하게 그냥 있듯이 좀 저거 하면 그렇게도 편안히 좀 있다가 또 저거 하면 '아, 나 일어나야지.' 그러면 그대로 생기가 날 수 있

☞ 18면으로 계속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17면에서 계속

고 이렇게 자유자재할 수 있게끔도 되는 것이 바로 여기의 문제다 이거야. 그 문제도 되지마는 자기의 모든 것이 일어나고 가라앉고 하는 거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자유권을 가진 거야, 이게, 응?

여러분이 자식들을 기르고 남편을 섬기고 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스님네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 도리를 모르면 항상 배가 고프고, 허허,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못 쓰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지. 그러니까 항상 배가 고프고 항상 거리로 다니게 되고. 뭐, 집에 들어가 자질 못해서 거리로 다닌다는 게 아니야. 집이 있어도 그건 거리 노중에서 돌아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 집이 없고 내 주인이 없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만날 얻으러 다니지 않으면 안 되고 노예 문서를 항상 짊어지지 않으면 안 돼. 노예 문서를 태워 버려야 되지. 그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그것은 중이라고 해. 중!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그 심월, 심월봉에서 불이 그냥 번쩍 나면, 그냥 번개같이 번쩍 나면 모든 것이 거기에 따라서 붙는 대로 타 버리는 거라. "붙는 대로 타 버리니 무엇이 붙을 게 있고 뗄 게 있으랴! 그러면서도 여여함이 있으니 어찌 좋지 않으랴!" 이런 거라.

여러분이 "왜 그러면 스님은 깨달아지게끔 빨리 말씀을 해 주시지 그러느냐?" 그러지마는, 하하,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자기가 밥을 먹어 보고, 한 숟가락 먹어 보고 두 숟가락 먹어 보고 세 숟가락 먹어 보고, 이것도 먹어 보고 저것도 먹어 보고 그럴 때에 맛이 다 달라. 어떻게 한 가지 맛만 보고서 그것을 다 알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거야, 수천수만 가지인데. 그러면 한 가지 먹어 보고 '아, 이건 쓰더라.' 쓴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 단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땐가 세 가지가 포함해서 그냥 몰락 그게 되는 거지. 된다 할지라도 알았다는 그 생각의 자존심과 또는 아만, 아상, 욕심, 착 이런 거를 다 떼고 겸손하게, 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면서 번연히 떡그릇인 줄 알면서도 엎드러져 봐라 이거야. 그럼 거기서 진의가 나온다 이거야. 내가 높다고만 세워 놓으면 아무리 배우려도 높게 있기 때문에 얕은 데를 뛰어들어 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 말하고 나서 얘기해야겠군. 여기는 우주 줄도 있고 지능 줄도 있고 지혜 줄도 있고 참, 그, 물리가 터지는 줄도 있고 뭐,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아. 우리가 가난하면 가난한 줄도 있고 또 용궁 줄도 있고 또 관세음보살 줄도 있고 지장보살 줄도 있고 다 있어. 여기는 뭐, 없는 게 없이 있어, 이 줄이! 여기 이 보당에 전부 달렸다 이거야, 안팎 보당에. 안으로는 안으로대로 쓰면서 바깥으론 바깥에대로 여여하게 쓴다 이거야.

안팎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중이라고 할 수 없어. 옷을 입어서 중이 아니야. 머릴 깎아서 중이 아니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건지고자 해서 이 도량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편이야. 만약에 중이 돼 가지고 한 도량에서 요 절간을 마련해 가지고, 만약에 이걸 운영하고 먹고살기 위함이요, 남한테 절이나 받기 위함이요, 목탁이나 치기 위함이라면, 허허, 차라리 이런 노릇을 하지 않는 것이 당당할 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 여기 그렇게 성스러운 석가모니 부처가 계신다 해도 난 어쩐지 말이야, 바람과 같이 스쳐 가는 그 한때, 바람과 같이 스쳐 도는데, 훌떡 스쳐 돌면 또 딴 것이 되고 훌쩍 스쳐 돌면 딴 게 되고 하는데 뭐를 부처라고 세우고 뭐를 눈 밝은 사자라고 치고 또 눈먼 개라고 치느냐 이거야. 도대체 나는 그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눈먼 개는 개고, 눈 밝은 사자는 사자야.

그런데 나는 때에 따라서 어느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육조를 쳐라, 신수 치듯이." 그러면 그것은 서로 간에 말동무라도 좀, 이쪽에도 그렇고 이쪽에도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이치가 있다고. 없는 건 아니야. 곧바로 탁 해 버리면 말이 없어지거든. 안 그래? 그럼 서로 놀기 위해서도 그것을 비스듬하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그런다고. 그것도 재밌는 거라고. 또 그렇게 해 놓고는 빙긋이 웃고…. 그럭하다 보면 이 봉오라지에다 딱, 그냥 그쪽에다 탁 해 버리면 그때에 가서야 '아이고, 참!' 하고서 그때는 인제 없어지는 거지.

하지만 사람사람이 그것부터 알아야 돼. 눈 뜬 사자라 할지라도 눈 뜬 사자 노릇을 해서는 안 돼. 왜? 눈 뜬 사자라도 허점이 있을 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허점을 노리는 그 왜, 쪼끔 저거 해 가지고 괜히 몽둥이나 들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 그렇다고 몽둥이 맞을까 봐 그러는 건 아니야. 그런 걸 다…. 예를 들어서 본래에 이 달은, 본래 달은 있되 달은 없는 거야. 본래 없는 달인데 어떻게 몽둥이가 거기 있겠어? 붙을 게 뭐 있겠어? 본래 없기 때문에 그 또한 본래 없는 거다 이거야. (중략)

옛날에도 그런 이치가 있었는데, 옛날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랬는데 가난하긴 하지만 예전에 유명한 의(醫)한테 가서 일을 해 주면서 약재를 썰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 비록 무식은 하나 그거를 정성스럽게 하면서 그걸 배운 거라. 그런데 그 의는 참,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라는 걸 버리곤 했단 말이야. 하다가 중간에 그 노인이 돌아가시고 자기가 받긴 했는데 도대체 이 도리를 의술로써만은, 약재로써만은 도저히 해 나가는 데에 이것이 희박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산중으로 들었어.

산중으로 들어서 어떠한 참, 마땅한 도를 이룬 옛날 조사 스님이 계시니까 거길 들어서 무(無)의 도리를 자기가 포착한 거야. 포착해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그것을 맡아 가지고 하면서 장가들고 살아나가다가 아들 둘을 낳고 제자들을 두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데 자기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써 줬다 이거야. 모르는 사람한테는 방편으로 약을 씁네 했지만 자기 마음이었다 이거야. 그래서 약을 남들은 열 첩을 쓸 거를 자기는 반의 반 첩도 쓰지 않고 낫게 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딴 약인 줄 알지마는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다 이거야. 하다 못해 저 담 밑의 흙을 긁어서라도 요렇게 싸서 줬다 이거야. 무료로 다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비싼 약재를 사다 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그래도 진심으로써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병자들이 낫고 하는 것을 나라에서 알았어. 숙종 대왕 시대의 일인데. 그런데 그 의는 성이 백가였어요.

그래서 무식하지마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 마침 나라에서 동궁이 아파서 죽게 됐다 이거야. 그래서 그 의를 불러다가 했더니마는 아, 그냥그냥 낫잖아. 그러니 나라에서는 도대체 벼슬을 안 줄 수가 없어, 너무 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벼슬을 줬는데도 여전히 벼슬에는 마음이 없고 그저 들어오라고 그러면 옷을 입고 나갔다가는 나와 가지곤 훌렁 벗어 버리고 돌아다니는 거라, 응? 그러니 벼슬아치들이 그걸 보고선 아이고, 무식하니까 할 수 없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숙종 대왕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이거야. 너무나,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선이면서도 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했다 이거야.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서도 그 제자들과 자기 아들, 아들이지만 아들도 제자 아닌감.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병을 자기가 자처해서 앓아 가지고 그거를 고치도록 했다 이거야. 그러니 얼마나 인내가 있고 얼마나 자기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낫게도 할 수 있으련만 몸소 아팠다는 얘기야. (중략)

그러니 우리 공부하는 이 도리가, 그분들도 그랬지마는 예전에도 모든 지나간 역사를 본다면 대통령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그저 종교도 우리가 진실하게 이 마음을 밝히면서 공부하다가 이리저리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은 해 나가는 것도 방황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냥 없어져 버려. 푹 꺼져 버려. 회향이 되질 않아. 사람은 죽으나 사나 밀고 나가는 인내가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랑과 애절한 그 인간미가 있어야 돼. 정직한 인간미! 난 솔직한 얘기지 사람사람이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지마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가 자기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요, 자기 마음이 아는 것을 우주간 법계에서 아는 거라. 진실되고 진실치 않고는 자기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주간에도 알고 남들도 알아요. 속이려야 속일 수가 없어! 여러분이 그 도리를 안다면 속이려야 속일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 너무나 멋진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법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법망에, 수없는 그, 갈갈이 헤어날 수도 없는 법망에 우리의 근원이 거기에 다 연결이 됐다는 그 사실을 아신다면 참 너무도 묘법이요, 그렇게 광대무변한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원이 그렇게 그 도리에 의해서 자유자재권의 열쇠를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저런 큰 혹성도 좌우해. 그게 이리로 가게 하고 저리로 가게 해서가 아니라 그 살림살이에 모두 일어나고 가라앉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이 소리야. 그렇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국내를 지킬 수 있는…, 아주 가만히 앉아서 요기에서 나를 쏙쏙 그냥 빼내. 빼내! 빼내면 만 개도 빼내고 숫자 있는 대로 다 빼낼 수 있어. 빼내도 나는 여기 있는데 나를 빼내어도 빼낸 사이가 없어. 얼마나 좋아!

야, 남한테 들키지 않으니 좋고 남이 보지 않으니 좋고, 들어가는 것도 모르지 나오는 것도 모르지, 이건 무방비 상태로 문이 그냥, 그냥 탕탕 털린 거라. 그러니 뭐, 강이 깊어서 못 가거나 산이 높아서 못 가거나, 아니, 담이 쌓아져서 못 가거나 또 지구가 이렇게 있고 딴 데를, 허공에 이렇게 지구가 막혀서 못 가거나 이런 게 있어야 이게 거북하지, 얼마나 좋으냐 말이야. 이렇게 살기가 좋아도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를 음미해 보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업신여기고 '응, 부처님의 그 뜻만이 광대무변하고 나는 못났으니까 이걸 배워야겠다.' 그러고 바깥으로 끄달릴 거냐? '참너' 의 안에 있는 거를 발견해서 바깥으로 줄이 있는 거를 다 포착해라 이거야.

그러니 우리 이 마음 도리라는 게 어떤 사람이든지 때에 따라서는 "아이, 스님은 그저 이래도 이렇게 돌아가고 저래도 저렇게 돌아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게 있어야지. 오늘 안 죽으면 내일 죽으랴. 이러니 또 이게 이렇게 돌아가도 그냥 뒤범벅을 만들어 놔." 이러거든. 본래 진리가 뒤범벅이라. 본래 뒤범벅인데다가 뒤범벅으로 돼 있어도 아주 역력하게 체계가 서 있는 거는 법계의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무의 그 도리를 몰라서 뒤범벅 같지만 난 올바로 하는 거라고!

언젠가 한번 사월 팔일이 돼서 "이건 촛불이 하나도 없구먼!" 했더니 촛불이 왜 없느냐는 거야. 허허허. 그런데 촛불 켠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천 명 이상이 켰는데. 이거 되겠어요? 그런데 올해 촛불 켠 걸 보니까아, 많더군그래. 응? 허허허…. 참 기분 좋았어요. 저 산을 바라보니까, 등을 내려다본 게 아니라 저 산을 바라보니까 그 산봉우리에 화광이 비추더구먼그래. 마음들이 한데 모아져서 봉화불이 켜지듯이 이렇게 켜지니 얼마나 좋을까? 넋을 잃고 바라본 것도 바로 내 거울이라.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과 내 마음의 거울과 같이 동시에 반사가 되기 때문이라.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모두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일이 따져. 비구니 비구, 무슨 중생 부처, 보살 법신 뭐, 요런 걸 따지기 때문에 그게 막혀서 공부를 못 해. 그 일일이 막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누. 이것이 색과 이름에 자꾸 끄달리기 때문이라. 그걸,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죽으라고 죽으라고 그래도 안 죽어. 죽는 놈이 글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여자 따지고 남자 따지고 이러겠어? 죽은 놈이!

그러면 오늘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죽으나 사나 밀고 나가는 인내가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랑과 애절한 그 인간미가 있어야 돼.
정직한 인간미!

※위 법문은 1986년 6월 2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호국 불교 정신

난리와 외세를 진압하고 나라를 지킨다는 불교사상으로
다른 불교 국가에서는 거의 나타나지않는 한국 특유의 불교 사상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tv 305번 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현불 논단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



석길암 교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드문드문한 사찰 불자들의 모습
코로나19 유행으로 변한 일상들

정쟁이 되어버린 코로나19 상황
사회적 취약계층 관심 줄어들어
안전망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부처님, 공동체 쇠퇴 않으려면
"빈부귀천 없고, 서로 소통하라"

부처님오신날이 막 지났다. 다양한 연등이 사찰을 밝혔지만, 사찰을 드나드는 불자가 드문드문해도 어색하지 않은 것을 보면, 힘들게 느껴지던 코로나19도 이제 당연한 일상처럼 여기는 듯도 하다.

1년 하고도 6개월은 우리 일상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인간은 역시 변화에 쉽게 익숙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달라진 일상을 잘도 버티고 있으니.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때는 없었던 백신이 대안으로 등장했다는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백신의 등장에도 여전히 언론보도는 코로나 관련 뉴스로 북적인다. 그만큼 지켜야 할 일상을 빈 틈새 엿보듯이 코로나가 상존하는 치명적인 위협인 것은 여전해 보인다.

그런데 1년 그리고 6개월을 더 지나다 보니, 코로나19 관련 뉴스에서 흔적 없이 사라진 기사들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궁지로 내몰렸던 사회적 취약계층에 관한 뉴스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어느새 익숙해져서 망각해버려도 좋은, 더 이상은 뉴스의 소재조차 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도 지쳐버린 것일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국가적 재난 혹은 사회적 재난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해서 더욱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던 사회적 안전망이 한쪽으로 쏠리고 좁아지면서, 안전망 바깥으로 쉽게 내버려지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한계상황일 수는 있다. 코로나19 재난 사태가 끝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모르쇠로 일관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무관심이 그리고 방심이 우리 사회에는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부처님께서 열반 즈음의 마지막 유행(遊行)을 떠나시기 전에, 마가다의 아자타삿투 왕이 밧지족을 침략하여 멸망시키고자 부처님의 조언을 요청한 일화는 유명하다. 부처님은 '공동체가 쇠퇴하지 않는 일곱 가지 교훈'으로 답변하셨다. 답변 내용은 간단하다. 밧지족이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서로 돌보고 있고, 잘 소통하고 있다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아래 위의 소통이 활발하고,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잘 돌보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위기를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우리 사회는 과연 그러한가? 매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뉴스는 코로나19도, 극복 방안인 백신마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 정쟁 속에서 정작 경각에 놓여 있는 사회의 취약계층들은 기대하기보다는 자포자기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그렇게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지 못하는 타성화된 일상이 반복된다. 우리는 무너져버린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메꾸고 고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삶에 최소한 안전벨트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도록 소통하고 공존하고 협력하는 출발점은 우리의 주변에 대한 관심이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은 생명 하나하나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존중을 요청한다. 비록 우리가 부처님만큼의 관심을 우리 주변에 기울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관심을 주변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관심을 기울이고,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에게 부처님이 요청하신 최소한의 안전망에 다름 아닐 것이다.

社說

언택트 연등회 또 다른 기회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5월 15일 불교계는 사상 최초로 언택트 방식으로 연등회를 진행했다. 비가 오는 와중에 진행된 언택트 연등회는 단체들의 참여열기를 미처 느끼지 못할 정도로 현장에서는 어수선하게 진행됐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연등회 후에도 계속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검색 트래픽이 사상 최고치의 56%에 달할 정도로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유튜브 영상 조회 수도 1만 건을 넘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행사 뒤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이번 언택트 연등회는 각 지역 사찰과 단체들의 연희단들이 사전 율동 영상을 보내고 이를 편집하여 상영하는 부분과 줌을 활용해 불자들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접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중계도 더해졌다.

율동영상은 코로나로 인한 집회 금지 속에서도 율동에 참여한 이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전국을 연결한 소통 방식은 앞으로 연등회가 또 다른 국민 참여의 장이 될 수 있는 기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 시대에 부처님이 오신다면 유튜브를 통해 대기설법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얘기까지 나온다.

언택트 연등회를 통해 불교계는 전국 사찰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대형 행사와 법회마다 함께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 무형문화재 제122호인 연등회는 신라 진흥왕 때부터 팔관회와 함께 국가적인 불교행사로 이어져 왔으며, 다양성과 포용성 등을 인정받아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그 다양성과 포용성이 이제는 온라인상에서도 발휘되고 있다. 언택트 연등회를 계기로 불법 홍포 또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길 기원한다.

한국불교 포교, 체질 개선 시급

어느 순간부터일까. 종교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걱정부터 앞서게 된다. 탈종교사회에서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위무할 수 있지만, 내부 동력이 무너지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은 쉽게 인정하기 어려워서다.

한국갤럽은 5월 18, 20일 2차례 걸쳐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약 30년에 걸쳐 한국인의 종교 현황과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번 조사에는 불교 신행 체계가 흔들리고 있음이 나타나 충격이다. '경전을 얼마나 자주 읽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불교인 중 1%만이 하루 1회 이상이라고 답했다. '불경을 읽지 않는다'는 불교인은 66%에 달했다. 매일 기도하는 불자는 5%에 불과했다. '수행의 종교'라고 자부하는 불교의 신도라고 보기 힘든 수치다. 사찰 방문 빈도가 타종교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것은, 불교 법회나 의례가 주간이 아닌 초하루, 정월 등으로 이뤄져서이다. 하지만, 스스로 공부하고 수행하는 자력신앙을 가진 불교의 신도들이 경전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회해야 할 일이다.

과거의 불자들은 부처님오신날이나 입춘, 백중에 사찰에 가서 축원지를 올리는 '정서적 불자'들이 대다수였다. 재를 통한 구복에만 관심이 많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화되고 조직화된 신도들이 필요하다. 종단들도 이 같은 핵심 신도들이 많아져야 가속화되는 탈종교화 현상에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포교와 교육 분야에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이 잘못되고 어떻게 개선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마음은 보물로 가득찬 창고

한 겨울 얼어붙은 대지 위에 오직 소나무만 푸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앙상한 초목들이 봄기운을 맞으니 오색 색깔로 자신의 본성을 찬란하게 드러냅니다. 대자연의 신비한 생명법칙 앞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며칠 전에 지인이 아파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의 병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끊지 못해 생긴 병이었어요. 위로 대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리석은 소(牛)는 이미 떠나갔고 쥐고 있는 고삐는 세월에 삭아버렸어요. 다 썩은 고삐를 움켜쥐고 무얼 하겠다고 지나간 과거를 되돌리려 합니까? 무겁고 어두운 집착에서 하루 속히 해방되어 건강을 되찾아요."

과거에 대해 집착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위에 새긴 글씨와 같은 사람, 모래에 새긴 글씨와 같은 사람, 물에 쓴 글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위에 새긴 글씨는 비바람에도 지워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있으니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클까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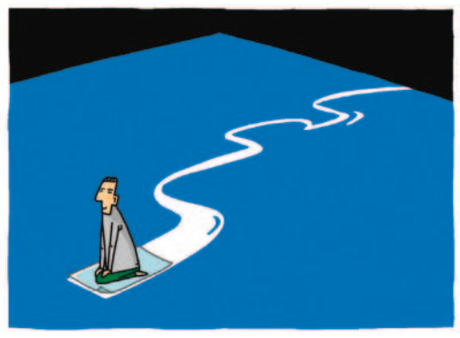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런 부류의 사람은 성냄이 오래 지속되는 사람으로 스스로 병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모래에 쓴 글씨와 같은 사람이란 자주 화를 내지만 그 성냄이 모래에 쓴 글씨같이 오래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래에 쓴 글씨는 바람 한 번 불면 사라지고 없으니, 외부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물에 쓴 글씨는 이내 흘러 자취도 없습니다. 물에 쓴 글씨와 같은 사람이란 욕설이나 언짢은 말을 들어도 그 마음에 자취를 남기지 않고 온화하며 즐거운 기분으로 지내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지요.

마음은 보물로 가득찬 창고와 같습니다. 바위에 새긴 글씨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창고를 믿지 않고 타인의 평가를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물에 쓴 글씨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 창고를 믿고 의연하게 살아갑니다.

마음의 창고가 어두우면 보석이 빛나지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불유쾌한 생각에 사로 잡혀 있거나 타인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으로 불타고 있다면 보배로 가득한 마음창고에 도둑을 불러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방해물인 집착을 버리는 순간부터 마음은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늘이 없는 밝은 마음을 가진다면 자기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을 바꾼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휘몰아치는 여러분의 정보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IT PLUS + ONE
ELSWIVER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회원을 관리하는 모든 웹사이트의 보안서비스 개선
+ 시스템 보안관리
+ 서버운영 및 관리
+ 업무용 전산 시스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관리
+ PC 유지보수

http://www.elswiver.com http://www.itplusone.com
Venture for Tomorrow
Korean Venture Entrepreneurship

IT PLUS + ONE 으로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IT PLUS + ONE 은 (주) 엘스위버의 정보보안 및 전산 통합관리 서비스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ELSWIVER
IT PLUS + ONE

TEL : 070-4060-7460

©Copyright 2018 ELSWIVER co.Ltd. ALL RIGHT RESERVED